

12+01

예술과 만남

2017 DECEMBER + 2018 JANUARY | VOL. 129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12+01

2017 DECEMBER + 2018 JANUARY | VOL. 129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CONTENTS

Focus

- 06 **Focus Image**
경기도문화의전당 <윈터페스티벌>
- 08 **Focus Column**
함께 공유하는 재미가 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윈터페스티벌>
- 12 **Focus Interview**
반 클라이번의 주인공,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Stage

- 18 **주목, 이 공연 I**
경기도문화의전당
12월 콘서트 선물 세트
- 20 **주목, 이 공연 II**
질은 어둠을 닮은 그 이름, 레베카!
뮤지컬 <레베카>
- 24 **주목, 이 공연 III**
110주년을 맞이한 천사들의 합창
<2017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
- 28 **주목, 이 공연 IV**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합창'
경기필 애플루트 시리즈 IV
<성시연의 베토벤 9번>
- 30 **과감하게 골라보기**
12, 1월 공연
- 32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
1930년대 조선가곡을
무대에 초대하기까지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
- 34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I**
"오, 성시연이여! 안녕히!"
경기필 애플루트 시리즈 III
<성시연의 말러 9번>

Interview

- 38 **GGAC가 만난 사람 I**
기억을 먹고 사는 멜로디스트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 42 **GGAC가 만난 사람 II**
경기도립예술단 PD 수첩
그들이 하는 일을 알고 싶다!
- 46 **예술가의 방**
음악따라 공연따라 유랑하는
팝스앙상블의 '흥' 이야기
- 50 **타인의 취향**
경기도에 예술을 선물하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 아카데미
한국무용 강사 정은하 씨

38



Story



- 54 예술, 수작을 걸다 I
공연보기 딱 좋은 날씨다!
- 58 예술, 수작을 걸다 II
오색빛깔 문화나눔 사업으로
구석구석 경기도를 누비다
- 62 예술과 인문학
G-소리맵에 담아낸 '경기'
천년의 음악을 찾아 떠나는 여행
- 66 예술, 즐기기
열린 우체통

Talk

- 67 예술, 더하기
- 68 GGAC News
- 70 공연 캘린더

Editor's Letter

종종걸음 치며 바빠 내닫다 보니
어느새 한해 끝자락에 다 달았고,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기뻐 손뼉 친 일,
웃음 머금은 기억, 속상해 눈물 짓던 때,
가슴 졸이던 순간 등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노라 스스로
토닥이며 위로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12월 내내 펼쳐질 전당 윈터페스티벌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예술과 만남> 속
공연들을 골라보는 즐거움을 얻으시길.
전당은 2018년 1월부터 오래된 설비를
정비하기 위해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쉬게 됩니다. 비록 장소는 달리하지만,
전당 기획공연, 경기도립예술단
정기기획·초창·순회 공연으로 전당 밖 공간에서
관객들과 더 가까이 호흡합니다.
깊고 멀리 내다보는 시선으로 자리할
경기도문화의전당,
그 안에 따사로움을 엿는
<예술과 만남>이 되겠습니다.
독자여러분!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발행인 정재훈
편집인 정재훈
편집장 임선미
기획·취재·편집 조명아
편집위원 신혜원
이경원
전윤희
박혜은
조아라

발행처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전화 031-230-3244

팩스 031-230-3275

이메일 magazine@ggac.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매드

FOCUS

SPECIAL
THEMA



2017 DECEMBER + 2018 JANUARY
GYEONGGI ARTS CENTER



06

Focus Image

경기도문화의전당 <윈터페스티벌>

08

Focus Column

함께 공유하는 재미가 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윈터페스티벌>

12

Focus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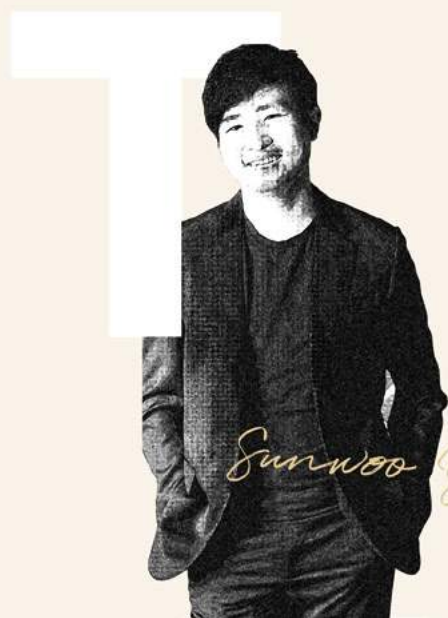
반 클라이번의 주인공,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Winter Festival



Urban Zakapa

Lee Seung Hwan



Sunwoo Yekwon

Les Petits Chanteurs à la Croix de Bois





Yiruma



*Choi So Bin
Ballet*



*Jang Gang Myung
Lee Dong Jin
Jeju Songyeon*



*Malo & Park Junwon
Kim Jong Jinn*



Nam 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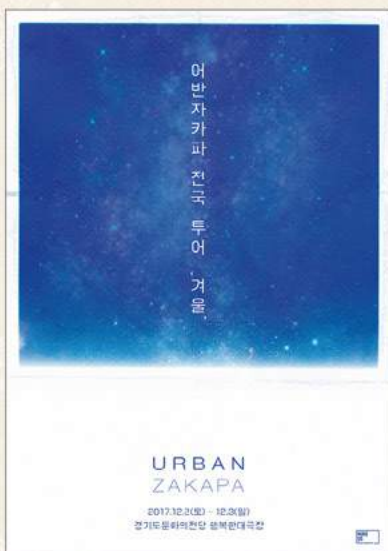
*Das Musical
REBECCA*

Winter

함께 공유하는 재미가 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윈터페스티벌'

글 강명석 문화평론가

다채로운 장르, 풍성한 라인업의 경기도문화의전당 <윈터페스티벌>이 출격했다. 각자의 공간, 각자의 음악을 즐기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음악을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으나, 세대와 장르 간의 소통을 쉽지 않다. <윈터페스티벌>은 다양한 뮤지션과 관객들이 함께 만들어가며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장을 만든다. 음악과 공연으로 창조되는 또 다른 공간. 지금 이 시대와 이 세대를 가장 잘 드러내는 페스티벌이다.



어반자카파 콘서트



브런치 콘서트



이루마 콘서트

지금의 10대에게는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의 이야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음악을 들으려면 라디오를 켜 놓고 좋아하는 음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아니면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오면 테이프를 녹음하거나, 돈을 더 써서 테이프, LP, CD 등을 사야 했다. 아니면 음악 감상실에 가서 원하는 곡을 신청하거나. 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에는 구하기 어려운 노래나 해외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는 뮤직비디오 감상실이 존재했었다. 그 당시 음악은 시간 또는 돈을 써야 들을 수 있는 귀한 것이었다. 지금은 모두 알다시피, 음악은 어디에나 있다. 한 달에 만 원 내외의 비용을 지불하면 수많은 곡을 스마트폰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음원으로 들을 수 있고,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 접속하면 24시간 내내 볼 수 있을 정도다. 해외의 경우 음악을 유튜브로만 감상하는 경우도 많아 비주얼적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선보이는 K-POP의 인기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다.

지금 한국인, 더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하는 음악을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고, 언제나 음악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대중이 음악을 받아들이는 기준을 바꾸고 있다. 원하는 곡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보니 카페, 매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실 새 없이 음악이 흘러나온다. 공간에 따라 흘러나오는 음악의 스타일도 달라진 것은 당연하다. 또한 과거에는 대중음악이 음악 소비에 관심 많은 10~20대 중심으로 흘러갔다면, 최근에는 전 세대가 각자의 음악을 찾아 듣는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취향에 따라 음악을 듣게 되면서 과거만큼 모두가 좋아하고 따라 부르는 유행가의 숫자는 줄어들었다. 지금의 음원차트는 그 결과다. 기성세대가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돌 음악이 차트 1위를 하는 한편, 반대로 10대는 들어본 적 없는 중년 가수의 노래가 차트 1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그만큼 음악을 듣는 사람도, 그들의 취향도 다양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음악을 듣는 시대는 음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인다. 반면 서로의 음악에 대해서 알아갈 기회는 줄어든다.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할 것은 아니지만, TV로 음악을 접하는 부모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10대 자녀 사이에 서로의 취향을 이해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 여백을 메꿔주는 것이 바로 공연이다. 공연은 각자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타인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다양한 뮤지션이 만나는 페스티벌 공연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취향을 만족시키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과거의 공연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는 의미가 컸다면, 모두가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는 자신의 취향과 감정을 함께 모여 공유한다는 점이 중요해졌다.

그 점에서 11월 3일부터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열리고 있는 '윈터 페스티벌'은 지금 한국인이 듣는 음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다.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린 조수미와 한영애부터 밴드 버즈와 윤종신, 어반자카파, 이승환, 포르테 디 콰트로, 이루마,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선우예린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연말까지 공연을 이어간다. 여기에 발레극 <호두까기 인형>을 비롯해 뮤지컬 <레베카>나 <브런치콘서트 with 김종진>과 같이 음악 콘서트와는 다른 형식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

2017 어반자카파

전국투어 콘서트 - 수원

일시 12월 2일(토) 오후 7시

12월 3일(일)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출연 어반자카파

가격 R석 12만 1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브런치콘서트 with 김종진

겨울 그리고 말로&박주원

일시 12월 7일(목) 오전 11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전석 2만 5천원

출연 김종진(진행), 말로, 박주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이루마 콘서트 Frame

일시 12월 7일(목)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석 8만 8천원 /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 A석 5만 5천원

출연 이루마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이승환 콘서트



호두까기 인형



話양연화 시즌 2 : 겨울의 비밀



남진 콘서트

이승환 콘서트

<공연의 끝: High End>

일시 12월 9일(토) 오후 6시
12월 10일(일)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출연 이승환
가격 VIP석 14만 3천원, R석 13만 2천원
5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최소빈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일시 12월 13일(수)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R석 3만원 / S석 2만원
출연 최소빈 발레단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BOOK & TALK CONCERT

話양연화 시즌 2 : 겨울의 비밀

일시 12월 14일(목)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R석 3만 3천원 / S석 2만 2천원
출연 이동진, 장강명, 박경환(재주소년)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2017 남진 송년콘서트

일시 12월 16일(토) 오후 2시, 6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 9만 9천원 / R석 8만 8천원
5석 6만 6천원 / A석 4만 4천원
출연 남진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특히 '윈터 페스티벌'의 라인업은 지금 한국인의 음악적 취향과 만나는 방식에 따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들을 망라, 여러 세대와 계층의 취향을 한 번에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조수미와 한영애가 각각 한국의 성악과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여성 뮤지션들이라면 11월 18~19일 공연하는 버즈는 데뷔 당시 댄스음악을 좋아하는 10대들에게 인기를 얻은 밴드라는 독특한 위치에 자리 잡은 뒤 이제는 함께 나이 먹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또한 최근 '줄니'를 통해 다시 한 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11월 25일 공연의 윤종신과 12월 7일 <브런치콘서트>를 여는 그룹 봄여름가을겨울의 기타리스트 김종진은 1990년대부터 20년 이상 인기를 얻고 있는 싱어송라이터들이고, 12월 2~3일 공연하는 어반자카파는 2009년 데뷔, 윤종신 다음 세대의 싱어송라이터를 대표한다. 또한 12월 7일 공연하는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클래식과 대중음악 사이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12월 17일 공연하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은 클래식장르의 대표주자로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이 사랑해 마지않는 피아노 스타인웨이를 통해 연주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그리고 11월 12일 공연한 포르테 디 콰트로는 JTBC '팬텀 싱어'를 통해 대중에게 다가설 수 있었던 팀으로, 요즘 대중이 음악을 접하는 또 하나의 방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은 과거와 달리 음악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새로운 뮤지션들을 알아가고, 그들의 공연에 찾아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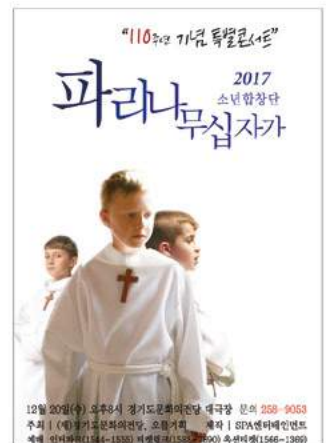
12월 9일과 10일 공연하는 이승환의 <공연의 끝: High end>는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취향이 공존하는 '윈터 페스티벌'에 방점을 찍는 공연이라 할 수 있다. 데뷔 30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승환은 그 시간 동안 팝과 록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와 음악에 관한 수많은 기술을 결합해 왔다. 1995년 '천일동안'이 담긴 앨범 'Human'을 제작하기 위해 미국에서 최고의 스태프들과 함께 녹음하며 한국 대중음악 녹음의 새로운 기원을 연 것도 그였고, 유희열, 김동률, 정석원 등 손꼽히는 뮈 뮤지션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한 것도 그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한국 대중음악 공연의 차원을 높였다. 지금 한국의 많은 대중음악 공연에서 쓰이는 아이디어와 장치 등은 상당수 이승환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의 공연 사운드는 음반을 틀어놓은 것 이상의 상태를 보여준다. 이승환의 공연이야말로 대중음악 공연이 종합 예술이라는 것

을 증명할 자리다. 이번 공연의 이름이 'High end'인 것은 그 점에서 적절하다. 이승환의 공연이야말로 한국에서 공연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성도 높은 무대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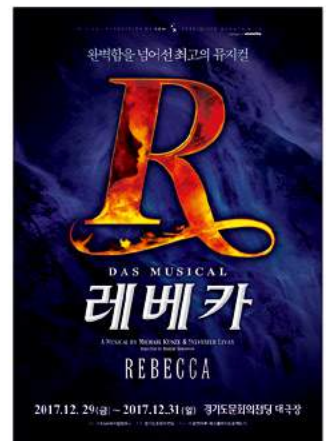
'윈터 페스티벌'의 공연들을 고르다 보면 지금 한국의 음악과 공연 흐름을 파악하면서, 재미와 교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윤종신처럼 다양한 세대의 관객들에게 어필할 싱어송라이터의 곡들이 있는가 하면 최소빈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들이 있고, 연극을 보고자 한다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추리극 <취미의 방>이 있으며,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가 함께 보고 싶은 공연을 찾는다면 중앙아시아 민담을 연극적으로 선보이는 <작은 악사>가 있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젖어두고 싶다면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이 부르는 클래식과 캐럴도 있다. 그리고 음악과 함께 지식과 교양을 쌓고 싶다면 공연과 북 토크를 결합한 <화양연화 시즌 2-겨울의 비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만든 브랜드 공연인 <화양연화>는 책과 음악을 결합한 토크 콘서트로 지난 시즌에 상당한 반응을 얻었는데, 이번에도 흥미로운 기획과 라인업을 선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영화에 관한 관점과 담론을 가장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평론가 이동진과 가장 주목받는 작가 장강명 등이 싱어송라이터 재주소년(박경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여기에 재주소년과 하이미스터메모리(박기혁) 등의 음악이 곁들여진다. 음악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시대에, 공연은 단지 음악을 잘 들려주는 것을 넘어 감각과 영감을 일깨우며, 관객들이 소통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 <화양연화>는 그런 변화를 대중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자리고, 이것은 '윈터 페스티벌'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기도 할 것이다. 두 달 가까운 '윈터 페스티벌'의 일정들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 바깥의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음악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금 알게 된다.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뮤지컬 레베카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12월 17일(일)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출연 선우예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문의 031-230-3440~2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콘서트
일시 12월 20일(수)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석 8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출연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뮤지컬 레베카

일시 12월 29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30일(토) 오후 3시, 7시
12월 31일(일) 오후 3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석 14만원 / R석 12만원
S석 9만원 / A석 7만원
출연 정성화, 민영기, 옥주현 등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반 클라이번의 주인공, 선우예권의 가장 완벽한 연주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최근 국내 음악계에서 가장 많이, 가장 뜨겁게 회자가 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일 것이다. 2017 반 클라이번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 한국인 피아니스트로 최다 국제 콩쿠르 1위 입상 등의 기록을 가진 주목받는 피아니스트이자 연주하는 곡마다 '완벽한 연주'라는 찬사를 받아온 선우예권. 그가 이번 <슈퍼 피아니스트 시리즈 II> 무대에서 반 클라이번 콩쿠르의 주요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경기도문화의전당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2015년 <Peace & Piano Festival>에서 협연 이후 경기도 문화의전당을 찾는 것이고, 협연 무대가 아닌 리사이틀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을 기다려온 경기도 관객들과 소통하게 된 소감을 들려주세요.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오랜만에 오르는 무대라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만큼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의 레퍼토리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레퍼토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연은 반 클라이번 콩쿠르의 리사이틀 경연 무대에서 선보였던 작품들로 꾸몄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콩쿠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콩쿠르 당시의 생생한 느낌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프로그

램을 골랐습니다. 1부에서는 퍼시 그레인저가 편곡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중 '사랑의 듀엣'과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9번으로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모습을, 2부에선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와 라벨의 '라 발스'로 화려하고 강렬한 인상을 드릴 수 있는 작품들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가진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센다이 국제 음악콩쿠르 1위, 윌리엄 카펠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및 청중상, 체임버 상, 인터라켄 클래식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피아노 캠퍼스 국제 콩쿠르 1위 및 청중상, 그리고 플로리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비롯해 반 클라이번 우승까지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인 피아니스트로서 최다 국제 콩쿠르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선우예권에게 '콩쿠르'가 갖는 의미는 어떠한가요.

저는 콩쿠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간절함, 절실함 이런 단어들 이 떠오릅니다. 처음 콩쿠르에 참여했을 때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는데요 이번 반 클라이번 콩쿠르는 더 많은 연주 기회를 갖기 위한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콩쿠르 경력과 상관없이 연주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콩쿠르를 통해 많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감사한 마음이 더 큼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단순히 우승이 아니라 진짜 제 음악을 보여드리고자 할 때, 좋은 결과도 생기고 연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북미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한국이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었고, 준비하는 마음이 남달랐다고 들었습니다. 뒷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신지요.

이번 콩쿠르 자체도 여러 경연 무대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컨디션 관리를 잘하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마지막에는 몸살까지 와서 더 힘들었죠. 그래서 일부러 옷을 두껍게 입고 잠을 자면서 땀을 빼고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풀어주며 컨디션을 조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호스트 패밀리를 비롯한 스태프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었고 협주곡 경연 때는 무대 뒤에서 어깨를 풀고 있었던니 슬래트킨 지휘자님이 오셔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시는 등 많은 분들의 배려도 있었고요 그런 덕분에 끝까지 무사히 콩쿠르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수석 입학하고, 전액 장학생으로 커티스 음악원에 입학했다고 들었습니다. 각종 인터뷰에서 커티스 음악원 당시를 자주 언급한 바 있으시고요. 세이무어 립킨을 사사하며 많은 성장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커티스 음악원에서의 음악 수업이 어땠는지, 스승으로서 립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커티스 음악원 같은 경우는 체임버 활동을 중요시 여기며 다른 음악가와의 교류를 중점으로 두고 있어요. 저도 재학 당시에 다양한 그룹과 연주하고 선생님들과도 함께 연주하며 배우는 기회들도 있었어요. 체임버 음악을 통해서 제 음악적 성숙도도 높이고 다른 연주자들에게 많은 자극을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세이무어 립킨 선생님께서는 6년 배웠는데요. 항상 성실하고 도덕적이며 음악에 헌신한 삶을 사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콩쿠르를 위한 몇 곡들만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레퍼토리들을 공부하는 데 더 신경을 썼어요. 거의 2주마다 다른 프로그램들로 레슨을 준비해야했었는데 그때 음악적 습득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주자로 길을 가려면 다양한 레퍼토리의 습득력도 중요한데 어렸을 때 배웠던 곡들은 다시 공부할 때도 수월하고 몸 안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있어 이때 다양한 레퍼토리를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가에게 레퍼토리를 넓혀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힘든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과 노하우로 레퍼토리를 다양화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조건이 빠른 편이라서 새로운 곡을 배우는 데 비교적 시간이 덜 걸리는 것 같아요. 레퍼토리를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각 작품들에 집중해서 작품의 깊은 내면까지 다 담아서 연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일 작곡가들의 작품에 끌리는 편이라 베토벤, 브람스, 슈만의 협주곡 작품들을 더 많이 연주해보고 싶습니다.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도 도전해보고 싶고요.

최근 데카골드 레이블로 발매된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앨범이 빌보드 정통클래식 부분 차트 1위에 오르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또 팬들은 선우예권 선생님이 성실한 연주자이고, '따뜻한 음악'을 들려준다고 하는데, 비결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저는 다행히 호평이나 혹평에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는 성격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좋은 리뷰가 있어도 그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사람 또는 음악가가 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2017년은 제게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한 해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Jeremy Enlow / The Clibum

앞으로의 계획과 피아니스트로 본인이 가장 지향하는 지점에 대해 간단하게 표현해주세요.

저는 음악 앞에서는 다른 잡념들은 다 잊고 작곡가들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더 근접하게 파악하고 그 본질의 감성들을 들려드리려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보다는 자연스럽게 더 신경을 쓰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을 평이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신념을 지키며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2018년에도 많은 무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외를 오가면서 다양한 무대에 오르게 될 텐데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테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

T

O N T H E
 V I E W

18

주목, 이 공연 I

경기도문화의전당 12월 콘서트 선물 세트
 어반자카파, 이루마, 이승환이 당신을 부른다

주목, 이 공연 II

짙은 어둠을 닮은 그 이름, 레베카!
 뮤지컬 <레베카>

주목, 이 공연 III

110주년을 맞이한 천사들의 합창
 <2017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

주목, 이 공연 IV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합창'
 경기필 애플루트 시리즈 IV
 <성시연의 베토벤 9번>

30

과감하게 골라보기
12, 1월 공연

A

G

E

32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

1930년대 조선가극을
무대에 초대하기까지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I

"오, 성시연이여! 안녕히!"
경기필 앵솔루트 시리즈 III
<성시연의 말러 9번>



PREVIEW

경기도문화의전당 12월 콘서트 선물 세트

어반자카파, 이루마, 이승환이 당신을 부른다

12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의 Winter Festival.
다채로운 공연들 중 콘서트만을 모았다. 2017년의 마지막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당신,
연인과 혹은 가족들과 함께할 콘서트를 물색 중이라면,
당신을 위한 콘서트에 시선을 돌려보자! 명불허전 공연의 고수들이 여기에 있다.

겨울 감성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어반자카파 콘서트>가 제격

'라이브 캣패', '믿고 듣는' 어반자카파가 관객과 만날 준비를 마쳤다. '널 사랑하지 않아', '목요일 밤', '혼자' 등의 노래들로 대중들의 감성을 저격하는 어반자카파가 12월 2~3일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찾는다. 여러 음역대를 넘나드는 보이스의 권순일, 파워풀한 보컬의 소유자이자 홍일점 조현아, 매력적인 저음의 박용인으로 구성된 어반자카파는 자신들만의 음색을 확실히 보여주는 혼성 3인조 R&B 그룹. 추운 겨울,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보고 싶다면, 감성 충만 어반자카파와 함께하면 좋을 듯.



이루마

피아노 선율을 통해 마음을 위로받기 원하면,
이루마 콘서트 <Frame>을 추천!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월드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 팬들을 찾아왔다. 11월 발매한 10집 앨범 'Frame'에는 한결 밝고 따스한 감성의 곡들이 현악 3중주와 함께 담겨있다.

이루마는 10집 앨범을 소개하고 자신만의 'Frame' 속으로 관객들을 초대하고자 이번 콘서트를 기획했다고. "가끔은 아픈 기억들도 멋진 프레임 안에 넣어둘 수 있다면, 살아가는 데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제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음을 치유 받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데뷔 15년 차를 맞이한 이루마의 삶과 음악. 그가 초대하는 Frame 속이 궁금하다.



이승환

2017 열정의 정점을 찍어보고 싶다면?

이승환과 원 없이 놀아보기!

공연의 끝판왕이 온다. 가수 이승환이 전국투어 콘서트 <High End>로 12월 9~10일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공연 장인', '한국형 콘서트의 원조'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승환은 지난 28년간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그야말로 '공연의 끝'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공연 역시 1%의 차이를 위해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땀 흘리며 최고를 지향하는 그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음악적 완성도, 검증된 가창력, 화려한 볼거리, 이 모든 것을 갖춘 <High End>와 함께 2017년의 정점을 찍어보자.

2017 어반자카파 전국투어 콘서트 - 수원

일시 12월 2일(토) 오후 7시
12월 3일(일)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출연 어반자카파
가격 R석 12만 1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2017 이루마 라이브 콘서트 <Frame>

일시 12월 7일(목)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출연 YIRUMA
가격 VIP석 8만 8천,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A석 5만 5천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이승환 콘서트 <공연의 끝: High End>

일시 12월 9일(토) 오후 6시
12월 10일(일)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출연 이승환
가격 VIP석 14만 3천원, R석 13만 2천원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PREVIEW

집은 어둠을 닮은 그 이름, 레베카!

뮤지컬 <레베카>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막심 드 윈터. 그는 몬테카를로 여행 중
우연히 '나'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막심의 저택인 맨덜리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맨덜리는 아름다웠지만 음산하고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기도 했다. 죽은 레베카가
마치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처럼. 맨덜리의 모든 것은 여전히 레베카에게 깊게 물들어 있었다.

게다가 집사 댄버스 부인은 시종일관 무표정을 유지하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새 안주인은 점점 숨통이 막혀움을 느낀다.





옥주현, 민영기, 이지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극 전체를 지배하는 기괴한 인물 '레베카'. 뮤지컬 <레베카>는 뛰어난 연출력과 캐릭터의 힘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 레베카를 극의 중심에 우뚝 세워놓는다. 이 실체 없는 여성은 '나'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며 그 어떤 등장인물보다 강렬한 존재감을 나타낸다. 마치 상징과도 같은 레베카의 의미를 더욱 짐작하려면 작품 <레베카>의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뮤지컬 <레베카>는 스릴러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1899~1980) 감독의 영화 <레베카>(1940)를 전신으로 하며, 영화는 대프니 듀 모리엘(1907~1989)의 소설 『레베카』(1938)를 원작으로 한다.

먼저 『레베카』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들어서며 큰 성공을 거뒀던 대프니는 실제로 남편의 첫 약혼녀였던 젠 리카르도(Jan Ricardo)에 대한 질투심을 안고 살았다. 젠 리카르도가 남편에게 보냈던 편지를 봤는데, 마지막에 아주 멋진 'R'이란 사인이 있었고 이것이 레베카의 시작이었다는 일화도 있다. 대프니는 『레베카』가 로맨스

소설로 불리는 것을 매우 꺼리며 로맨스가 아닌 '질투에 대한 탐구 이야기'라고 뜻을 박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히치콕 감독은 단지 조연에 불과했던 『레베카』의 '댄버스 부인'을 영화 <레베카>에서 강렬한 주연으로 끌어올렸다. '나'의 시기심과 두려움을 자극하며 이미 죽은 안주인 레베카의 존재감을 극대화시킨 인물이다. 히치콕 감독의 '댄버스 부인'은 살벌하고도 냉혹한 모습으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데, 뮤지컬 <레베카>는 영화의 인물들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뮤지컬 <레베카>의 관람 포인트는 '나'와 '댄버스 부인'의 대결 구도, 그리고 마침내 쟁취하는 '나'의 성장과 성숙이다. '댄버스 부인'이 하이 소프라노로 레베카를 목 놓아 부르는 노래 '레베카'는 그녀의 기괴한 욕망을 표현한 곡으로, 배우의 폭발적인 성량이 그대로 드러나는 전개가 일품이다. 이와 함께 누구에게든 어린아이 취급을 받던 순수하고 소심한 '나'가 '댄버스 부인', 즉 레베카라는 질투와 공포의 대상을 이겨내고 강인하면서도 현명한 부인으로 거듭나는 과정도 지켜볼 만하다. 맨덜리 저택 내 자신의 자리와 남편 막심의 사랑을 스스로 조금씩 쟁취해나가는 모습은 소설 『레베카』에서부터 일관되게 묘사하는 건강한 메시지이다. 음산한 배경과 범상치 않은 인물이 등장함에도 팬들이 <레베카>를 사랑스럽다 평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정성화, 정동호



옥주현, 이지혜



정영주, 이지혜

뮤지컬 <레베카>

일시 12월 29일(금) 오후 7시30분
12월 30일(토) 오후 3시, 7시
12월 31일(일) 오후 3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출연 정성화, 민영기, 옥주현 등

가격 VIP석 14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1588-5212, 1588-0766

CASTING SCHEDULE

일	정	막심	댄버스	나	잭 파벨	반호퍼	베아트릭스	
12월 29일	금	7:30	민영기	옥주현	김금나	최민철	김나윤	이정화
12월 30일	토	3:00	정성화	옥주현	이지혜	최민철	김나윤	이정화
		7:00	민영기	신영숙	김금나	최민철	정영주	류수화
12월 31일	일	3:00	송창의	신영숙	이지혜	이상현	정영주	류수화

PREVIEW

110주년을 맞이한 천사들의 합창

<2017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

주목! 이 공연!!!

천상의 하모니, 평화의 사도! 110년 전통의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그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한국을 찾는데…….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음, 폭넓은 레퍼토리까지 갖춘 소년들이 궁금하다!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을 소개합니다.

1906년 알프스 산맥의 타미에 수도원을 방문했던 두 신학생은 종교음악의 진수를 보여주하고자 합창단을 설립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마이유 신부의 지휘 아래 각국의 민요 및 샹송, 팝, 크로스오버 등의 다채롭고 폭넓은 레퍼토리 와 함께 아름다운 아카펠라로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는다. 1931년 북미 진출을 시작으로 캐나다,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주요 도시를 비롯한 백여 개 나라로의 정기적인 월드투어를 진행하며 현재 세계 최고의 합창단으로 사랑받고 있다.

남다른 사명감, 평화의 상징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단원들은 다성악(아카펠라) 수업, 개인 노래수업 과 단체 노래수업을 받으며 교사들을 세계 투어 공연에 동반하여 단원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가르친다. '전체를 위하여 개인을 양보하는 것'은 합창단의 매우 중요한 규율이다. 또한 '존경심', '대화', '적응력', '결속력', '사랑'과 같은 단어는 그들의 주요 가치관. 교황 비오 12세로부터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 만을 위한 미사를 친히 집전 받는 영예를 안으며 '평화의 사도'라는 사명을 짊어졌다. 1953년 글로뉴 국제평화회의와 1956년 파리평화회의에서 특별공연을 하는 등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화외교사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017년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에서는

뛰어난 음악적 기량으로 보이 소프라노의 진수를 보여주는 모차르트의 '자장가 (Berceuse de Mozart)' 등의 클래식 명곡들, 아름답고 성스러운 '아베 마리아 (Ave Maria)' 등의 성가들을 감상할 수 있다. 세계의 다양한 민요, 프랑스 대표 샹송 메들리인 '파리 파남므(Paris Panam)'를 비롯해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Heal The World)' 같은 월드 팝송과 크리스마스 캐럴,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너는 듣고 있는가(Do You Hear The People Sing)' 등의 뮤지컬 넘버로 환상적인 레퍼토리를 준비해 가족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행복한 연말 콘서트가 될 것이다.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콘서트

일시 12월 20일(수)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출연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가격 VIP석 8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1544-2344, 031-289-6424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합창’ 경기필의 <베토벤 9번 교향곡>

경기필 애플루트 시리즈 IV ‘성시연의 베토벤 9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정.

유럽연합의 공식 상징가로 사용.

자필 원본악보가 2003년 런던 소더비 경매장에서 3,300,000 달러에 낙찰.

서양 음악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로 평가.

경기필이 2017 마지막 ‘애플루트 시리즈’로 선택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Op. 125.

일명 ‘합창 교향곡’이다.



성시연의 애플루트 시리즈 IV

베토벤 9번 교향곡

일시 12월 19일(화) ~ 12월 20일(수) 오후 8시

장소 (화)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가격 (화) R석 4만원, S석 2.5만원, A석 1.5만원

(수)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C석 1만원

출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 성시연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

문의 031-230-3440~2



마지막

1824년, 베토벤은 마지막 교향곡인 '합창 교향곡'을 완성했다. 여덟 번째 교향곡을 작곡한 지 12년 만의 일이었다. 20대 청년 시절부터 괴테와 실러의 작품에 심취했던 베토벤은 스물세 살의 나이에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에 연센가곡을 붙일 결심을 했다. 그리고 30여 년이 흘러 마침내 그 꿈을 실현했다. 런던 필하모닉 협회로부터 새로운 교향곡을 의뢰받은 베토벤은 때가 되었고 판단, 「환희의 송가」를 가사로 한 합창곡을 만들어 교향곡 4악장에 삽입했다. 베토벤 최후의 교향곡으로 남은 이 곡은 아름다운 멜로디와 인류애적인 가사 내용으로 송년음악회에 자주 쓰이며, 오늘날 대중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혁신적

베토벤은 교향곡 9번을 통해 교향곡이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기악곡이라는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트렸다. 음악 역사상 최초로 교향곡에 솔리스트와 합창단을 등장시키며 '합창 교향곡'이라는 부제를 얻었다. 보통 느린 템포의 2악장과 빠른 템포의 3악장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교향곡 구조를 뒤집고 두 악장의 순서를 바꾸어 반전을 선사하기도 했다. 베토벤의 혁신적 시도는 1악장에서도 발견된다. 어린 음형을 길게 늘어뜨리며 청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활기찬 선율을 기대하게 하지만, 모호한 도입부가 한참 지난 후 웅장한 음악을 등장시킴으로 극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애뜻한

'합창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 베토벤은 이미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였다.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의지하며 마침내 생애 마지막 교향곡을 완성한 그였지만, 지휘에는 무리가 있었다. '합창 교향곡'의 초연은 케른트너토어 극장에서 이루어졌는데, 미하일 울라우프가 대신 포디움에 올라 지휘봉을 잡고 베토벤은 그 옆자리에 앉았다. 모든 연주가 끝난 후, 청중들의 기립 박수갈채가 쏟아졌지만, 오직 한 사람 베토벤만 이를 듣지 못하고 청중들을 등지고 서 있다가 독창자의 배려로 청중들을 마주 보았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성시연

베토벤의 애뜻했던 포디움을 성시연이 이어받는다. 성시연은 이번 연주를 끝으로 경기필을 떠난다. 아름다우면서 카리스마 넘쳤던 수장 성시연을 떠나보내는 경기필의 마지막 선곡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4명의 솔리스트와 100여 명의 합창단이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노래한다.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을 기리고, 마에스트로 성시연의 앞날을 축복하며, 경기필의 2018년을 격려하는 대서시시가 12월, 수원과 서울 두 차례에 걸쳐 울려 퍼진다.

"태양이 수많은 별 위를 움직이듯이
광활한 하늘의 궤도를 즐겁게 날듯이,
형제여 길을 달려라,
영웅이 승리의 길을 달리듯이!"

프리드리히 실러 「환희의 송가」 (1786) 中

과 감 하 게 콜 라 보 기



어반자카파 콘서트

2017 어반자카파 전국투어 콘서트

일시 12월 2일(토) 오후 7시
12월 3일(일)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R석 12만 1천원 / S석 11만원
A석 9만 9천원

출연 어반자카파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목요일 밤’, ‘혼자’ 등의 노래로 대중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어반자카파가 이 겨울, 포근한 공연으로 수원을 찾는다. 혼성 3인조 R&B 싱어송라이터 그룹인 어반자카파는 2009년 데뷔 이래 20대 감성을 대표하는 뮤지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브런치콘서트 with 김종진

겨울 그리고 말로&박주원

일시 12월 7일(목) 오전 11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전석 2만 5천원
출연 김종진(진행), 말로, 박주원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마티네 콘서트의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호평을 받은 경기도문화의전당 <브런치 콘서트>가 올해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있다. 봄여름가을겨울의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김종진과 함께할 ‘겨울’ 무대 게스트는 재즈 보컬 말로와 집시 기타 연주자 박주원. 공연 전후에 제공되는 커피와 브런치는 <브런치 콘서트>만의 즐거움이다.



이루마 콘서트

Frame

일시 12월 7일(목)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석 8만 8천원 / R석 7만 7천원
S석 6만 6천원 / A석 5만 5천원

출연 이루마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2017년 월드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연말 새 앨범과 함께 공연장을 찾는다. 신규앨범 <frame>을 국내 팬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고자 기획한 이번 콘서트의 타이틀 역시 ‘frame’.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싶다는 이루마만의 frame 속을 들여다보자.



이승환 콘서트

공연의 끝 : High End

일시 12월 9일(토) 오후 6시
12월 10일(일)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석 14만 3천원
R석 13만 2천원
S석 11만 1천원 / A석 9만 9천원

출연 이승환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한국형 콘서트의 원조, 오로지 관객들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이승환 콘서트가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펼쳐진다. 한 해를 그냥 보내기 아쉽고, 화끈하게 2018년을 맞이하고 싶다면 이승환과 함께 올 한 해의 High End를 찍어 보면 좋을 듯.



최소빈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일시 12월 13일(수)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R석 3만원 / S석 2만원
출연 최소빈 발레단
관람연령 5세 이상 관람가

겨울이 찾아오면 전 세계인들이 찾는 인기 발레 최소빈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피콜로로 표현된 앙증맞은 중국 춤, 현악기와 관악기가 떠들썩하게 연주하는 러시아 춤뿐 아니라 ‘꽃의 왈츠’, ‘눈의 왈츠’ 등 다양한 왈츠 음악으로 한겨울 밤의 무도회에 온 듯한 기분을 전 달한다. 어린이들에게는 사랑스럽고 환상적인 세계를 선물하고, 어른들에게는 아련한 동심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BOOK & TALK CONCERT

話양연화 시즌 2 : 겨울의 비밀

일시 12월 14일(목)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R석 3만 3천원 / S석 2만 2천원
출연 이동진, 장강명, 박경환(재주소년)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경기도문화의전당 대표 브랜드 공연 <話양연화>가 마지막 ‘겨울의 비밀’편을 준비했다. 올 한 해 거짓말, 실수, 오해 등의 주제로 관객을 만나온 <話양연화>. 마지막 겨울 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자리에는 영화평론가 이동진과 작가 장강명, 싱어송라이터 재주소년이 함께한다.



남진 콘서트 2017 남진 송년콘서트

일시 12월 16일(토) 오후 2시, 6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 9만 9천원 / R석 8만 8천원
S석 6만 6천원 / A석 4만 4천원
출연 남진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국민가수, 젊은 오빠 등의 수식어를 거느리고 있는 가수 남진이 송년콘서트를 연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무대 매너, 화끈한 팬 서비스까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보여주는 그는, 이번 송년콘서트에서 세월을 함께한 팬들을 위해 추억의 명곡들을 들려주고자 더욱 화려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퓨전 국악 판개소리

일시 12월 16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국악당 흥겨운 극장
가격 3만원
출연 김권식, 조갑용, 이부산, 이정식 등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국악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보기 좋게 깨버릴 공연, <판개소리>가 열린다. 국악은 물론 다양한 장르의 명인들이 크로스오버를 시도한다는데. 남사당패의 놀이종합예술 판굿과 모듬북 퍼포먼스, 드럼, 베이스, 전자바이올린까지 강렬하고도 풍성한 무대가 찾아온다. 김권식(전자바이올린), 조갑용(태평소, 팽과리), 이부산(장구), 이정식(색소폰) 명인들이 준비한 명품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슈퍼 피아니스트 시리즈 II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12월 17일(일)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출연 선우예권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최고의 명품 피아노 스타인웨이와 슈퍼 피아니스트의 만남을 주선해 '슈퍼 피아니스트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임동혁에 이은 두 번째 주인공은 한국인 최다 콩쿠르 우승 기록을 보유한 세계적 아티스트 선우예권. 피아니스트가 이끄는 대로 완벽히 반응하는 스타인웨이, 선우예권과 스타인웨이의 케미스트리가 어떤 음색을 들려줄지 궁금하다.



애플루트 시리즈 IV 성시연의 베토벤 9번

일시 12월 19일(화) ~ 20일(수) 오후 8시
장소 (화)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가격 (화) R석 4만원 / S석 2만 5천원
A석 1만 5천원
(수) R석 8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
원 B석 2만원 / C석 1만원
출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 성시연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입장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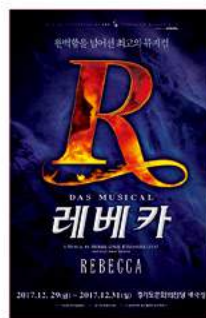
경기필이 2017 애플루트 시리즈 마지막 공연으로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선택했다. 이번 공연은 성시연 예술단장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공연이기도 하다. 경기필을 세계적 오케스트라 반열에 올려놓으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던 성시연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지켜보자.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 2017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콘서트

일시 12월 20일(수)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석 8만 / R석 7만원 / S석 5만원
출연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정통 보이 소프라노 아카펠라 소년합창단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이 크리스마스 특별 초청공연을 연다.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투어로 전세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한국을 찾아 사랑스러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보이 소프라노의 진수를 만나보자.



뮤지컬 뮤지컬 레베카

일시 12월 29일(금) 오후 7시30분
12월 30일(토) 오후 3시, 7시
12월 31일(일) 오후 3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석 14만원 / R석 12만원
S석 9만원 / A석 7만원
출연 정성화, 민영기, 옥주현 등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더 뮤지컬 어워즈 5관왕, 전 세계 160만 관객 관람! 가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뮤지컬 <레베카>가 온다. 로맨스와 서스펜스의 완벽한 결합, 객석을 압도하는 폭발적 에너지! 2017년 하반기 가장 주목받는 뮤지컬로 선정된 <레베카>와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해 보길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이은혜

REVIEW

1930년대 조선가희를 무대에 초대하기까지

글 한소라 경기도문화의전당 국악사업팀

1930년대는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이 만나 왕성한 예술 활동이 이뤄졌던 문화예술 부흥기라 일컬어진다.

공연 <윤중강과 함께 하는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는 이처럼 화려했던 30년대에 전성기를 누린 조선가희 5인의 삶과 음악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새내기 공연기획자가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매혹적인 여가수 5인을 맞이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이수자 김민지

엄청난 일을 맡은 느낌이었다. 국악계 유명인사, 국악평론가 윤종강 선생님과 함께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1930년대 여가수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공연이라니.

1930년대의 문화는 역사 시간에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그 자료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영화 '해어화', 드라마 '시카고 타자기' 등 최근 들어 1930년대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시의 음악을 듣고 자란 세대부터 젊은 세대들까지 포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공연의 큰 틀을 잡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30년대 여가수 5인(이난영, 박향림, 왕수복, 선우일선, 이화자)을 주제로 하는 토크콘서트로,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 여러 장르의 음악과 가수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해설로, 원곡 가수의 목소리가 필요한 부분은 복각음반과 영상으로, 생동감이 필요한 부분은 라이브 연주로 진행했다.

처음부터 라이브 연주를 기획했던 만큼 염두에 두고 있던 가수가 있었는데, 바로 경기도립국악단 민요팀의 하지아 상임단원이었다. 윤종강 선생님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이번 공연의 기대주로 떠올랐는데 아쉽게도 국악단 공연과 일정이 겹쳐 함께하지 못했다. 이후 국립부산국악원의 이은혜

씨가 합류해 '오빠는 풍각쟁이'를 맛깔나게 소화하며 그 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었다. 몇 차례의 연출 미팅과 음악 연습을 거듭하며 처음에는 아코디언과 어쿠스틱 기타만 사용해 그 당시 그대로의 음악을 재현하려고 했지만, 공연 특성상 좀 더 풍성한 음악을 선사하기 위해 키보드와 퍼커션이 추가되는 변화도 있었다.

이렇게 공연 기획을 마쳤다고 하여 기획자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만들어진 큐시트를 바탕으로 스태프 회의를 진행하고, 공연 중 사용할 악기도 준비해야 하며, 공연 중 사용될 영상을 점검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에는 국악방송의 촬영이 진행되어 지원도 해야 했다.

입사 후 첫 공연을 준비하며 나 역시 1930년대 음악의 매력에 푹 빠진 시간이었다. 시대가 이만큼 지났는데도 이 가수들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또 그들이 부른 노래는 얼마나 매력 있는 노래였는지를 새삼 느꼈다. 특히 이난영의 '다방의 푸른 꿈'은 지금 들어도 손색없는 재즈 음악으로, 나도 모르게 종종 흥얼거리게 되니까. 이 공연은 내년에도 시리즈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에는 어떤 가수들의 무슨 노래를 만나게 될지 기대해 봐도 좋겠다.


 REVIEW

“오, 성시연이여! 안녕히!”

영화 '카핑 베토벤'에서 베토벤은 '음악가의 존재 이유는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를 성시연과 경기필하모닉에 대입하면, 지난 4년은 성시연 지휘자가
 경기필이라는 '신의 언어'를 청중에게 온전히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시간이었다.
 그 시작과 끝은 말려졌다. 말려의 '부활' 교향곡으로 포문을 열었고, 말려의 '이별' 교향곡으로 문을 닫았다.
 부활했으되 이별했다. 마치 흠에서 와서 흠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처럼...

글 유혁준 음악칼럼니스트 · 클라라하우스 대표



10월 28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성시연의 말러 교향곡 9번' 콘서트는 이제 경기필과 계약 종료로 앞둔 지휘자의 마지막 불꽃 같았다. 성시연은 4악장 마지막 마디가 끝나고도 손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아마도 짧았던 몇 초 동안 경기필과 동고동락했던 4년이 스쳤으리라. 마침내 객석으로 뒤돌아선 그녀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비장했다.

첼리스트 막시밀리안 호르농은 악관의 젊은이답게 시원시원했다. 슈만의 협주곡들이 그러하듯 오케스트라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는 '환상곡'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다. 곡의 백미와도 같은 2악장, 호르농과 경기필 채유리 수석과의 이중주는 슈만과 클라라가 사랑을 속삭이듯 애뜻했고, 커튼콜 때 일부러 찾아가 감사의 악수를 청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말러 교향곡 9번을 위해 무대로 나오는 성시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첫 비딩을 위해 지휘봉이 올라갔으나 비틀거리는 도입부 모티브만큼이나 오케스트라는 조금 불안했다. 말러의 교향곡 가운데 가장 어렵고 난해한 1악장. 파국, 절정, 붕괴, 해체가 난맥처럼 얹힌 음표의 숲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 성시연과 경기필은 부단히도 애를 썼다. 3악장 '부르레스케'는 모난 작곡

가의 마음을 도출하려는 듯했다. E플랫조 클라리넷은 비웃듯 독 쏘았다. 마침내 4악장, 현악기의 출렁임은 교향곡 전체를 하나로 묶는 '전환동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템포는 끝까지 지켜졌고 '안녕, 안녕', '세상이여', '안녕히'라고 말려가 쓴 코다에서 'A내추럴음'이 뒤틀린 채로 들려왔다. '성시연 식 이별'은 이렇게 갈무리되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기필이 국내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대신 경기필은 국내 최고의 감동을 안겨주곤 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번 공연이 감동 깊었지만, 관악기가 아쉬웠다는 얘기가 있었다. 하나 그런 기교적인 면이 무슨 상관인가. 경기필은 베를린필이 아니다. 성시연 체제 하에서 4년 동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추구했고, 단원 개인의 기량보다는 전체가 뿜어내는 음악으로 감동을 주었다.

여전히 경기필은 전용홀이 없다. 성시연이 떠난 경기필은 이제 경기도의 몫이다. 그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더 세심히 악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돌아서는 뒷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보내주는 여운을 길게 느끼고 싶다는 성시연의 '이별사'는 그래서 정겹다.



IN

A R T &
P E O P L E



38

GGAC가 만난 사람 I

기억을 먹고 사는 멜로디스트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GGAC가 만난 사람 II

경기도립예술단 PD 수첩
그들이 하는 일을 알고 싶다!

46

예술가의 방

음악따라 공연따라 유랑하는
팝스앙상블의 '흥' 이야기

INTERVIEW



50

타인의 취향

경기도에 예술을 선물하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 아카데미 한국무용

강사 정은하 씨



INTERVIEW

기억을 먹고 사는 멜로디스트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남자에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생각할 것이 많아지고
책임질 것 또한 많아지며 대개는 아버지가 된다는 뜻일 것이다.
음악가에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그간의 다양한 경험과 기억이 쌓이고 깎이고 다듬어져
더욱 견고해진 감성으로 자신의 이름에 무게가 더해진다는 뜻이다.
10장의 앨범. 16년의 시간. 그렇게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뜻을 이뤄간 이루마에 대하여.

2017 이루마 라이브 콘서트 〈Frame〉

일시 12월 7일(목)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석 8만 8천원 /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 A석 5만5천원

출연 이루마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 1544-3901

이루마라는 이름의 Frame

음악가의 앨범 한 장 한 장은 다양한 경험과 기억이 쌓이고 다듬어진, 마치 한 권의 일기장과도 같다. 기대와 설렘이 존재하고, 공감과 위로가 녹아 흐르며, 또다시 누군가에게 추억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가 「프레임(Frame)」이란 타이틀의 또 한 권의 일기장을 들고서 우리 곁을 찾아왔다. 이번 10집 앨범 「Frame」은 데뷔 16년 간 축적된 이루마만의 감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작품인 동시에, 국내 팬들에 대한 그의 애정이 담긴 선물이기도 하다.

Q.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작년부터 월드 투어가 있었고, 정규 앨범 준비도 했어요 어느덧 10집이라 고민이 더 되더라고요 100이란 숫자가 갖는 상징성과 무게가 있으니. 특히나 이번 앨범은 ‘옛날에 어떤 느낌으로 곡을 썼었지?’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Q. 10집 앨범 제목이 「Frame」이던데.

사진작가분들께서 프레임은 예술의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음악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나 풍경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걸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 또 그것을 앨범에 담아내는 작업이 곧 하나의 프레임 작업인 거죠. 이번 앨범 역시 그렇게 제 생각과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저는 어떤 기억이든, 추억이든 프레임 안에 담아 둘 수 있다면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가끔 위로도 받을 수 있고요. 늘 그래왔듯, 제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순간이길 바랍니다.

Q. 그렇다면 이루마 씨가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에 대해 대중이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즐겨주었으면 하나요?

저는 오히려 비워 두고 싶어요. 연주 음악의 묘미나 매력은 그 여백 속에 자신을 대입하고 결합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연 때에도 말씀드리죠. ‘이 음악은 완성된 음악이 아니다. 음악 자체가 완성될 수 없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더해지고 누군가의 추억이 결합되어야지만 음악이 완성된다’라고요. 제가 둔 프레임 속에 자신의 모습을 덧입히거나, 누군가를 담거나, 추억하는 과정을 리스너의 몫으로 두고 싶어요.

Q. 이루마 씨 음악은 실험적인 이미지보다는 대중적인 음악, 듣기 좋은 음악이라는 프레임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군 입대 전 발매한 5집 「His Monologue」가 실험적인 앨범이었어요. 팬들에게는 반응이 좋았지만, 대중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프리페어드 기법’이라고 피아노에 각종 도구를

끼워 넣어 피아노 특유의 음색에 변화를 꾀하고 타악기적인 느낌을 가미한 도전이었는데 그런 곡이 ‘Kiss the rain’이나 ‘River flows in you’만큼 리드미컬하거나 예쁘진 않으니깐요. 퓨전적이고, 실험성 짙은 음악은 제가 좀 더 대중과 친숙해졌을 때 천천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번 앨범에 ‘A Moonlight Song’이라는 곡을 들어보시면 아방가르드하게 코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되도록 앨범에서 한 곡 정도는 제가고자 하는 방향의 음악을 넣으려 하죠.

Q. 한편 앨범 발매와 함께 전국 8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7일에는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도 관객들과 만나시죠?

연말이니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나온 시간에 대한 격려를 건넬 수 있었음 해요. 클래식 음악보다는 편안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공연 중 즐거우시면 박수를 치셔도 되고요(웃음). 그 순간만큼은 제 음악에 각자의 이야기를 담아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참고로 이번 앨범에 몇 곡 정도는 피아노와 현악기가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공연 때 한결 밝고 따스하고 풍성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Q. 이전에도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는 종종 공연을 가지셨는데요. 혹시 이곳에 얹힌 추억도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콘서트 때 관객 중 한 명을 무대로 초청하여 협연하는 즉흥 무대가 있었어요. 보통은 여자 관객분들의 참여도가 높는데, 전당에서 공연하던 당시에는 남성 관객분들께서 더 적극적이었죠. 그 가운데 남자 고등학생을 무대로 맞이했고 함께 즉흥 연주를 했는데, 굉장히 잘 찼던 기억이 나요. 간단히 몇 음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멜로디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해서 제가 흥칫했었죠. 멜로디가 더 추가되면 즉흥으로는 힘들어지니까(웃음).

작곡가와 피아니스트의 경계

2001년 1집 「Love Scene」으로 데뷔한 이루마는 한국 연주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다. 섬세한 선율의 ‘Kiss the rain’, ‘When the love falls’ 등은 세상에 나온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의 음악 속에 ‘마음을 움직이는 서정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일 터. 때로는 수줍고, 때로는 따뜻하며, 때로는 가슴 저린. 그리고 그 음악을 배경으로 자신의 ‘어느 한때’가 그림같이 펼쳐지고 떠오른다는 점에서 ‘이루마’라는 이름과 그의 음악이 차지하는 힘은 상당히 특별하다.

Q. 활동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적잖은 시간 속에서 음악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나요?

20대 때 '사랑'을 주제로 작업했다면, 이제는 남편이자 아버지이기 때문에 '삶'을 생각하게 돼요. 훗날 딸과 제가 어떤 음악을 했었는지 이야기 나눌 순간이 왔을 때, 깊이 있는 음악이었음 좋겠고, 자랑스러운 음악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20대 때에는 곡을 완성하고 나서 흔쾌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고치고 또 들여다보고 또 고치게 되죠. 좀 더 책임감을 갖게 되요.

Q.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루마 씨 연주와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곡을 쓰고요, 그 곡을 많은 분들께서 연주해 주시니까요. 피아노를 접해본 분들은 조금만 연습해도 칠 수 있고, 듣기에도 편안하죠. 또 다른 이유로는 생활 속에서 틀어 놓아도 크게 부딪히지도 않는다는 것.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배경음악이 되니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Q. 그런데 어느 인터뷰를 보니 이루마 씨의 장르를 뉴에이지보다 세미 클래식으로 규정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의 우리가 클래식을 대하듯, 어쩌면 몇 세기가 흐른 뒤에도 제 곡을 연주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상상했어요. 진짜 클래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식이란 단어를 붙여 보고도 싶었고. 하지만 클래식과는 다른 장르거든요.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음악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즈나 클래식이 아닌 피아노 위주의 음악을 거의 뉴에이지 장르로 묶고 있는 것이 불편했어요.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더 장르를 세분화하여 세미 클래식이라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Q. 우리는 이루마 씨를 피아니스트로 기억하지만, 스스로 작곡가로 불리길 원한다고요?

원래 작곡을 전공했고,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제 곡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그게 더 궁금하죠. 아직도 무대에서 서면 긴장이 돼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자가 됩니다. 16년 넘은 세월 동안 제가 쌓은 노하우로 공연을 이끌어 나가거든요. 그나마 제가 쓴 곡을 연주하는 거니까 저를 편안하게 해요.

Q. 그렇다면 작곡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요. 또, 저는 기억으로 먹고사는 사람이라 그간의 기억과 사람과 공간 하나하나가 소재가 되죠. 오히려 제가 작곡가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더 니이가 들어연주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와도 곡은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뉴욕 및 LA 단독 콘서트

이루마표 선율로 세계를 매혹시키다

지난 몇 년간 이루마는 활발한 해외 활동을 펼치며 전 세계인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잔잔한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것. 2년 연속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전석 매진, 뉴욕 카네기 홀 전석 매진 등의 기록을 비롯하여 2017년 유튜브 내 콘텐츠 조회 수가 많은 K팝 스타 조사에서 방탄소년단, 싸이와 함께 3위에 랭크됐다는 점이 이러한 그의 인기를 방증한다.

Q. 이루마 씨 음악은 세계 각국 유튜브 상위에 랭크되며 해외 팬들로부터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신기해요. K-Pop 가수분들 사이에서 연주 음악가는 저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연주 시장이 작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해외에서도 제 곡을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이겠죠. SNS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면 피아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제 곡을 연주하시더라고요. 저는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닌데, 고마울 따름이에요.

Q. <예술과 만남> 독자들을 위해 발표한 앨범 가운데 이 겨울 어울릴 만한 곡을 추천해 주신다면.

10집 앨범의 'Autumn Finds Winter'를 추천할게요. 4집 수록곡 가운데 'Wonder boy'가 있는데 그 곡의 한글 제목이 '가을과 겨울이 만났다'였어요. 그래서 이 곡엔 '가을이 겨울을 찾았다'라고 붙였는데, 제가 찾고자 했던 걸 찾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팝적인 요소가 가미된 코드 진행이라서 여러분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Q. 마지막으로 어떤 음악인으로,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연주자보다 작곡가로 기억에 남고 싶어요. '한국인이 저런 음악을 썼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선이라도 그을 수 있는 작곡가가 되고 싶습니다.

경기도립예술단 PD 수첩 그들이 하는 일을 알고 싶다!

경기도의 예술과 문화를 책임지는 경기도립예술단에는 숨은 주역이 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곧 공연이 되고, 그들의 땀과 열정은 감동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무대가 아니다. 무대 밖에서 경기도립예술단의 모든 공연을 빚어서 완성해내는 빛나는 제2의 예술가들. 도립예술단 기획실 4인방을 만나본다.

경기도립예술단
선요PD 이수빈

- 2011년 입단
- <매화리 극장>, <로미오와 줄리엣> 등 다수 작품 참여

경기도립예술단
주요PD 박혜은

- 2013년 입단
- <교과서 속 아시아 음악이야기>, <Fun Asia> 등 다수 작품 참여

경기필하모닉
선임PD 최중혁

- 2010년 입단
- <모차르트 vs 인공지능> 등 다수 작품 참여

경기도립북악단
선임PD 박수연

- 2010년 입단
- <태권무무 달하>, <판>, <천년의판타지> 등 다수 작품 참여

네 분은 평소에 자주 만나시나요?

박수연 PD 네, 업무 관련 문의를 하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국악단만 용인에 사무실이 있고, 나머지는 전당에서 근무하니까 볼 일도 많고요.

박혜은 PD 여기서서는 제가 막내네요(웃음). 선배님들이 먼저 자리를 잘 잡아주셔서 덕분에 안정적으로 일하게 되어 늘 감사하고 있어요.

예술단 기획실 PD는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최종혁 PD 공연제작자와 비슷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예술단마다 기획실에 3~4명의 PD들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모여서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 및 진행을 하며, 홍보와 마케팅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도 추가되고요.

박혜은 PD 하나의 컨셉을 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연을 만들어내는 일부터가 기획실 PD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일반 기획사의 라이선스 작품을 올리는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민 PD 경기도립예술단에서 연간 진행하는 공연은 정기기획공연, 초청공연, 문화복지사업인 예술단문화나눔31 등 순회공연, 각 예술단의 재능기부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업의 영역이나 스케일에 따라서 각 PD들이 담당 역할을 정해가며 협업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각 예술단 단원들을 이끄는 매니지먼트 업무도 맡게 됩니다.

그러면 공연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시겠어요.

최종혁 PD 정기기획 공연이 특히 그렇죠. 내 공연이라는 느낌을 가져요. 찾아가는 순회공연의 경우에는 직접 프로그램 해설이나 곡 소개를 하는 PD들도 있고요.

이수민 PD 극단 공연의 경우에는 PD가 객석을 정리하는 일부터 공연 진행을 위한 바람잡이 역할까지 하게 돼요. 단원들이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공연이 돋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게 임무이자 보람인 셈이죠.

각 예술단마다 장르가 다르니 업무의 차이점도 있을 텐데요.

박혜은 PD 국악단의 경우는 우리 소리를 보다 새롭게 재창작해내느냐는 고민을 늘 갖고 있어요. 국악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소개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박수연 PD 무용단도 비슷해요. 저희 공연이 한국무용과 한국무용을 기반으로 한 창작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관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깨는 작업부터 해야 하죠.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낯설지 않으면서 관객에게 흥미롭게 다가가는 공연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명이 있어요.

최종혁 PD 국악단과 무용단이 계승, 발전, 융합에 주안점을 둔다면 필하모닉은 클래식 명곡을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저희 오케스트라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연들을 기획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수민 PD 극단의 경우에는 대형 라이선스 작품들과 소극장의 시장 분립이라든지 변하고 있는 상황을 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다른 예술단과 좀 달라요. 가장 대중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관객의 피드백이 빠르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기획실 PD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신 건가요. 각자 전공도 궁금해요.

박혜은 PD 저는 대학에서 한국음악을 토대로 예술경영을 전공했어요. 전에도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경기도립국악단은 우리 음악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죠. 또한 기획파트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꼭 일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입단 5년 차가 되었네요. 돌아보면 참 감회가 새로워요.

이수민 PD 저는 통계와 행정학을 전공

했어요. 공연과 인연이 될 줄은 정말 몰랐죠(웃음). 일반 회사에 다니던 시절 클라이언트인 공연 기획사들의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 공연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술단 기획실 PD가 된 케이스예요.

박수연 PD 기획 관련 전공자들이라기 보다는 예술 전공이나 작게라도 공연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예술단 기획실이죠.

최종혁 PD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는 전공 공부와는 많이 다른 편이에요. 전공에 관계없이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예술단 기획실 PD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립예술단 공연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최종혁 PD 문화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수준이 굉장히 높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의 역할이 더 커졌고요. 경기필하모닉은 예술성에 중점을 둔 작품과 대중성에 중점을 둔 작품을 분리해서 그에 맞는 기획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박혜은 PD 경기도립예술단의 경우 경기도문화의전당을 통해 4개 예술단이 함께 연간 공연을 펼치기 때문에 관객들의 선호하는 장르 및 세대별로 서로 조율하면서 다양한 공연기획을 할 수 있어요. 결국 관객이 공연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큰 게 사실이죠.

이수민 PD 타깃층의 기호를 고려하면서 도립 극단이 갖고 있는 정체성도 지켜나가야 하니까 많은 고민 끝에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수연 PD 무용단의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창작무용도 프로그램에 넣고 있어요.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많이 공연되고 있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수민 PD 극단 공연은 관객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연 시작 전에 관련 인사들의 인사말이 길어지면 관객들이 지칠 수 있어서 좀 줄여줄 수 있을

지 조심스레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최종혁 PD 저는 작년에 공연한 '모차르트 vs 인공지능'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서 더 애착을 갖고 진행한 게 사실이고요. 성과와 관계없이 이런 경험들이 다음 공연에 영향을 주고 기획실 PD만의 역량이 되는 것 같아요.

박수연 PD 그렇게 참신하고 반응이 좋은 공연을 타 예술단에서 기획하는 걸 보면 자극도 되고, 함께 응원도 해주게 돼요. 내 공연처럼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죠.

박혜은 PD 무심코 본 매거진에 타 예술단이 소개된 기사를 보면 저희 예술단이 소개된 것처럼 가슴이 뭉클해요. 가족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예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설민석 강사님과 진행했던 '교과서 속 아시아 음악이야기 - Fun Asia'가 기억이 나는데요. 관객 분들이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오히려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많은 고민 끝에 이뤄진 공연인데 기획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지요.

예술단 기획실 PD를 꿈꾸는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박수연 PD 생각보다 현실적인 업무가

많아요. 자질구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들도 다 해내야 하고요. 하지만 없는 것을 창조해낸다는 보람은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이 예술의 장점이자 예술단 기획실 PD의 즐거움이기도 하죠.

최종혁 PD 제가 작곡 전공이긴 한데, 원래 관심이 많아서 컴퓨터 업무가 낯설거나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는 일이다 보니 혼자 예술을 하던 분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도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수민 PD 전공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직업입니다.

박혜은 PD 시대가 변해도 기획, 창작과 같은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은 인간만이 해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와도 메리트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최근 담당하신 공연 소개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박혜은 PD 국악단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31개 지역의 전통 소리를 찾아내서 공연은 물론, 기록으로 남기는

'경기 소리를 찾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1월에는 공연 홍보와 소중한 소리 찾기 작업에 집중하려고요.

박수연 PD 무용단은 창단 이래 처음으로 북유럽 공연을 진행했어요. 스웨덴과 핀란드 공연 이었는데, 새로운 경험이 되었어요. 2018년에는 전당 공사 관계로 31개 시·군 지자체 협력 공연을 기획하고 있어요. 예술단 저변확대의 기회로 삼고 주력하려고 해요.

최종혁 PD 12월에는 4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경기필하모닉 성시연 단장님의 마지막 공연인 '경기필 애플루트시리즈 IV - Farewell Concert'가 펼쳐져요. 성공적인 공연으로 잘 마무리되고 떠나는 성시연 지휘자님과 경기필 모두 더욱 성장해서 언젠가 다시 같은 무대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수민 PD 극단에 올해 신임 예술단장님이 부임하셔서 내년도 라인업을 구성하고 계세요. 내부적으로는 소규모 작품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어요. 내년 전당 공사 관련 찾아가는 공연 등 공간 제약에서 벗어난 새로운 도전을 마음껏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GYEONGGI ARTS CENTER





INTERVIEW

음악따라 공연따라 유랑하는 팝스앙상블의 '흥' 이야기

팝스앙상블 색소폰 정동규, 건반 김상민 단원

어떤 공연도 '흥' 하나는 자신 있다. 관객이 절로 일어나 온몸으로 공연에 젖게 할 수 있다.

어떤 곡을 요청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멋들어지게 연주할 수 있다.

자타공인 '흥 메이커' 경기팝스앙상블의 이유 있는 자신감이다. 음악 따라 공연 따라
경기도 곳곳을 누비는 팝스앙상블의 한 공연에서 멤버 2인을 만나 팝스앙상블표 흥의 비결을 들어봤다.





찾아가는 팝스앙상블의 작은 콘서트

11월 11일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배드민턴대회가 열린 수원 만석공원 실내 배드민턴전용구장.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경기장 한 편에 하나둘 악기가 놓이고, 멋진 유니폼을 차려 입은 연주자들이 등장했다. 무대라고 할 것도 없이 작았지만, 멤버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바로 찾아가는 콘서트로 유명한 경기팝스앙상블 단원들. 공연 기획 및 진행을 맡고 있는 전용범 주임 PD와 세 명의 단원들, 그리고 객원 보컬로 테너 이상철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작은 공연이라 7명의 단원 중 3명만 참여합니다. 무대와 공연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풍선 같은 매력이 팝스앙상블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이날 공연에 나선 색소폰 정동규 단원의 설명이다. 도립예술단 소속 퓨전음악 밴드의 무대치고는 작아 보였지만, 팝스앙상블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의미 있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 찾아가는 콘서트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지역 행사나 아트센터 등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음악을 선물한다.

“우리나라 국토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인 만큼 구석구석 안 다녀본 곳이 없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색다른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것은 언제나 감동을 주죠”라고 건반 김상민 단원이 덧붙였다.



정동규 단원(2015년 입단) | 색소폰 파트

전국 유일 도립 퓨전그룹

1999년 경기도립팝스오케스트라 리듬앙상블로 시작해 2010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재구성된 경기팝스앙상블은 팝, 클래식, 대중가요, 영화음악, 국악 등 장르를 막론하고 경기도민들이 사랑하는 음악이라면 어떤 것이든 개성 있게 연주하는 퓨전그룹이다. 지금까지 1000여 회의 국내외 공연을 통해 문화나눔을 실천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이 날 공연 역시 찾아가는 콘서트로,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배드민턴대회 첫 회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에게 팝스앙상블만의 매력적인 연주를 선물하기 위해 단원들이 나선 자리였다.

전용범 주임 PD의 소개와 함께 굼직하고 강렬한 테너 이상철이 '지금 이 순간'을 첫 곡으로 부르며 등장하자 장내가 술렁거렸다. 이어 준비한 꽃을 관객들에게 나눠주며 '꽃밭에서'를 부르자 이내 웃음꽃이 만발했다.

특히 이곡은 정동규 단원의 색소폰 연주가 돋보이는 곡이었다. 그는 기타에서 전공을 바꾼 후 색소폰 연주자로서 경력을 쌓아왔다. 재즈 빅 밴드를 하며 전국 곳곳을 돌아다닌 경험은 팝스앙상블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2013년에 객원 단원으로 팝스 앙상블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이후 2015년에 상임 단원으로 정식 입단해 활동하고 있죠. 자유롭게 살다가 출퇴근 하는 단원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곧 익숙해지고 팝스앙상블 단원으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꺼지는 파트의 실수가 있었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며 분위기를 흐리지 않았다. 서서히 리듬을 타며 공연을 즐기다 아는 곡이 나오자 노래를 부르는 보컬 곁으로 관객들이 나와 함께 부르기도 했다. 이번 상황이 속출했지만, 이게 바로 찾아가는 공연의 맛이 아닐까. 밴드도 관객도 당황했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대중과의 호흡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정 단원은 "공연 준비를 할 때 타깃층을 선정해서 미리 레퍼토리를 준비해 오지만, 객석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바꿀 때가 허다합니다. 분위기를 잘 타는 관객들이 무대 위로 직접 오르기도 하는데, 공연에 방해가 된다고보다는 오히려 공연 분위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라고 말했다.

마지막 곡은 그 유명한 '마이웨이'. 건반을 맡고 있는 김상민 단원의 연주가 돋보이는 곡이었다. 2012년에 입단해 활동하고 있는 김 단원은 음악인 가정에서 자라나 여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 중학교 때 재즈로 전환했다.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세션으로 활약한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김상민 단원(2012년 입단) | 건반 파트

소화하고 있다. 정동규 단원과는 중학교 동창으로 한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팝스앙상블 입단을 계기로 조우하게 되었다고. 인연도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다.

"처음에는 팝스앙상블이 이런 활동을 하는 예술단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 활동과 지향점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죠. 뜻이 맞는 단원들과 함께 일이 곧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이런 예술단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라고 김 단원은 전했다.

함께라서 더 행복한 경기도의 밴드

그리고 30여 분간의 작은 콘서트가 끝이 났다. 누구 하나 불만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다. 주말에 이루어진 특별한 '업무'였지만, 단원들의 표정은 밝기만 했다.

정동규 단원은 "아직도 많은 경기도민들이 팝스앙상블의 존재를 잘 모르세요. 계속해서 더 열심히 저희를 알려야죠. 마지막으로 팝스앙상블 단원을 꿈꾸는 음악 후배들에게 한 가지 당부해도 될까요? 자신만의 음악을 추구하면서도 이 음악을 들어줄 대중의 마음을 읽었으면 해요. 대중들이 사랑할 만한, 그런 음악을 할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전했다.

김상민 단원도 "평소 접하기 힘든 공연을 찾아가서 직접 선물한다는 목표를 가진 밴드가 바로 저희 팝스앙상블이에요. 경기도민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곳을 찾아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단독 앨범을 언젠가 내고 싶은데... 팝스앙상블 단원을 떠나 뮤지션으로서도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콘서트를 계속 진행하고 싶어요"라며 꿈을 내비치기도 했다. 공연 횟수만큼, 이동 거리만큼, 팝스앙상블의 추력과 보람도 쌓여간다. 밴드란, 각 세션의 실력이 아닌 조합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그래서 이들은 팝스'앙상블'이다.



경기도에 예술을 선물하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 아카데미 한국무용 강사 정은하 씨

타인의 추앙

50 + 51



누군가는 한국무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한국무용은 삶의 이유이자 큰 행복이다.
경기도민과 도립예술단의 친목의 장이자 나눔과 소통의
매개가 되고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 아카데미.
아카데미 한국무용 수업의 정은하 강사와 수강생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숨어 있는 수업이기도 하다.



경기도민들에게 전하는 한국무용의 아름다움

우아한 몸짓, 아름다움 춤사위.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 아카데미 강습실에서 만난 정은하 강사의 첫인상은 카리스마 넘치는 무용수 그 자체였다. 수강생들도 절도 있는 그녀의 가르침에 빠져들어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고 있었다.

“이곳 수강생 여러분들은 대부분 무용을 취미로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전공자들도 아닌데 깊이 있게 한국무용에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좋아서 무용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강사로서의 책임감으로 좀 더 심도 깊은 수업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무용에 대해 낯설고 어렵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정은하 강사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전통춤의 맥을 잇는다는 게 꼭 무용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 사람에 의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어야 비로소 그 맥이 이어질 수 있다고 그녀는 믿고 있다.

“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은 저의 진지함에 당황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 일반 아카데미 수업에 비해 수준이 높다고 평가해주세요. 이왕이면 즐기면서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웃음).”

그도 그럴 것이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 아카데미의 모든 수업은 전공자로서 해당 부분 경력이 많거나 예술단원 출신의 강사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술 아카데미에서 춤추, 남도살풀이, 태평무 등의 강의를 맡고 있는 정은하 강사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 17년 간 경기도립무용단 단원으로 활약했다. 상임, 차석, 수석 단원을 거쳐 총무까지 안팎으로 무용단을 이끌어 왔다. 예술 아카데미 강의를 시작한 건 2008년부터. 무용 단원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며 경기도민에게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아카데미 강사로서의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도립무용단 출신 강사로서 춤을 대하는 자세

“오랫동안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 제 강의를 계속해서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 년 동안 작품 한 가지를 마스터하는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주로 50~70세 어머님들이신데, 다들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걸 하시며 한국

무용 자체를 즐기고 계세요.”

한국무용의 어떤 매력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한국무용은 우리의 전통 춤이기에 구성구석 모든 요소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흥과 연결된다. 특히 정 강사는 한국무용의 운동 효과에 대해 강조한다. 무리해서 몸을 쓰지 않고 호흡, 스트레칭이 이루어지고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며,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발을 떼기도 힘들어하는 초보자부터 20년을 무용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이 한 수업을 듣는다. 기본기를 다지는 것부터 작품 완성을 하는 것까지 한 강좌에서 이루어진다.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끄는 것 또한 정은하 강사의 역할이자 역량이다.

“자긍심이 없으면 오래 버틸 수 없겠죠. 무용가로 20대, 30대를 모두 전당에서 보냈어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아프고 슬픈 순간도 모두 이곳에서 느꼈죠. 그래서 더 의미 있고 소중한 곳이에요. 춤에 대해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집중하고 싶어요.”

그런 그녀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건 역시 수강생들이다. 아카데미 첫 수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 온 70대의 수강생도, 처음에는 무용을 반대했지만 돌아가시기 전 딸처럼 한국무용을 배우러 다녔던 친정어머니도 그런 그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제 노력을 알아주시는 수강생 분들을 보면 힘이 나요. 돌아가신 엄마를 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무용 강사로서의 제 삶에 감사하며 의미 있게 강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은하 강사

- 국립국악고/송의여대 무용학과 졸업
- 경기도립무용단 단원(1995-2012)
-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 아카데미 한국무용 강사(2008-)
- 경기도 국악당 전통예술 교육강좌 한국무용 강사(2015-)
- 경기도교육복지센터 한국무용 강사(2017-)
- (사)뿌리때예술단 이사(2015-)

S

TO

A B O U T
C U L T U R E

R

54

예술, 수작을 걸다 I
공연보기 딱 좋은 날씨다!

예술, 수작을 걸다 II
오색빛깔 문화나눔 사업으로
구석구석 경기도를 누비다

62

예술과 인문학
G-소리맵에 담아낸 '경기'
천년의 음악을 찾아 떠나는 여행

66

예술, 즐기기
열린 우체통



공연보기 딱 좋은 날씨다!

글 이경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무대기술팀

영화 <신세계>의 인상적인 한 장면이 떠오른다. 조직의 2인자가 감옥에 다녀온 사이 그의 세력은 힘을 잃었고, 미완의 건물 맨 위층에 도착한 그는 다른 2인자들의 부하들과 맞닥뜨리며 마지막을 직감한다. 그리고 명대사를 남겼다. “죽기 딱 좋은 날씨다”라는….

아름다운 날씨를 비견하기에 다소 엉뚱한 표현일 수 있으나 문득 생각 난 대사이다. 올가을은 어렸을 때 보아 온,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은 보기 드문 길고도 좋은 날씨를 가득 머금은 계절이었다.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도 좋을 것 같은 때.

이렇듯 올가을은 “공연 보기 딱 좋은 날씨”가 이어졌다.



경기도립극단이 이 가을, 서울 대학로를 찾았다.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연극 <윤이상, 상처입은 용>이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군더더기 없는 연출, 배우들의 안정적인 연기, 생생한 음악 연주와 함께 호평받았던 것은 바로 세트 운용. 바로 이 무대에 얹힌 이야기를 준비했다.

셋업하기

연극은 무대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세트가 매우 중요하다. 세트는 연출 의도를 세트디자이너가 공연대본과 자신의 영감을 통해 해석하여 무대 배경으로 디자인하게 된다. 무대 디자인이 최종 확정되면 극장도면 위에 표시하여 무대감독과 공유한다. 무대감독은 그 도면대로 공연장 무대에 직접 세트를 표시한다. 무대 위 세트표시는 조명감독에게도 중요하다. 이후 세트팀이 그 표시에 따라 무대 위에 세트를 세운다. 이번 공연에서도 마찬가지. 극장 도면 위에 그려진 무대세트 디자인을 라인테이프를 무대 바닥에 표시했다. 이것이 무대감독이 공연장에서 하는 첫 번째 일이다.



무대 바닥 셋업

소통하기

공연은 영화와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편집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렇기에 무대감독은 공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공연 중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혹시나 공연 중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빠르게 판단해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또한 무대감독의 몫이다.

무대감독은 조명감독, 음향감독, 세트전환팀, 영상감독과 함께 공연 중 각자의 역할 분담과 공연에 필요한 무대전환에 대해 사전조율을 한다. 물론 무대감독이 모든 큐사인을 내리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기에 각 파트별 감독들과 호흡을 맞춰 무사히 공연을 마쳐야 한다.

이번 대학로 공연도 그랬다. 무대감독과, 음향감독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스태프들이지만 조명과 영상은 외부에서 섭외됐다. 그렇기에 배우들의 연습과정을 지켜보면서 영상과 조명에 대해 조율하고 사인을 맞춰나갔다. 이 모든 과정과 결정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건 무대감독이다.

호흡하기

한 편의 공연에는 수많은 조명과 음향, 무대세트의 다양한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무대에 영상까지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무대 장비는 극의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물론 무대 장비가 극 중에 일어나는 사건과 조화를 이룰 때의 일이다. 무대 장비가 극에 잘 녹아들면 관객들의 몰입도 역시 높아지고 그 느낌은 스태프에게도 전달된다.

음향의 울림과 조명의 변화, 세트의 전환 등은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객들은 극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무대 장비를 예민하게 체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무대 위 배우나 무대 뒤의 무대 조명 음향 기계 영상 등 각 파트 감독들은 극 중 인물의 대사나 움직임에 맞춰 장비와 효과를 변환시켜야 한다. 그러니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특히 극 중에 이루어지는 대사는 연기하는 배우의 호흡이 고스란히 드러나므로 무대 감독은 그 호흡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배우의 호흡을 자신의 호흡과 맞추며 조명이나 음향, 무대전환에 따른 큐사인을 준다. 그렇게 무대감독이 배우의 움직임과 대사의 호흡을 파악하며 정확한 타이밍으로 무대전환이 이루어질 때 무대는 제3의 배우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이번 공연은 무대전환이 잦았던 만큼 그 전환마다 무대감독인 나는 배우의 호흡과 동작을 파악해 무대와 극이 한 몸이 되려고 부단히 애썼다. 물론 관객들은 그 찰나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저 나만이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해서 무대를 바라볼 뿐이다.

“무대감독이 배우의 움직임과
대사의 호흡을 파악하며
정확한 타이밍으로 무대전환이
이루어질 때 무대는
제3의 배우가 될 수 있다.”



리허설 전 큐시트 확인 작업

공연이 끝난 후 무대 철수



공연 전 대본 확인과 장면 전환 확인 작업

에피소드

이번 <윤이상, 상처입은 용> 무대 뒤에도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 그중 하나는 유난히 잦았던 무대 전환과 관련된 것이다. 극 중 세트에 있는 중앙문이 최대한 빨리 열려야 하는 장면이 있었다. 중앙문을 양쪽으로 열기 위해서는 줄을 당겨야 했다. 천천히 당길 땐 문제가 없지만 세게 당기면 줄이 늘어나 버린다. 한번은 공연 중 줄을 너무 세게 당겨 줄이 늘어나면서 도르래에 끼고 말았다. 결국 문이 닫혀야 하는 장면에서 닫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그 안에서 세트가 전환되면 문이 열리고 배우가 등장하는 중요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결국 무대감독인 내가 중앙문까지 뛰어가 도르래에 끼어 있는 줄을 다시 원위치시키고 다시 문을 열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등줄기에는 땀이 흘렀다. 역시나 공연 중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알 수가 없다.

호수 위에 있는 우아한 백조의 자태는 물 아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발이 있기에 가능하듯, 좋은 공연의 뒤편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감독들의 고군분투와 엄청난 긴장감이 존재한다는 걸 재차 확인했다. 어쩌면 그 긴장과 호흡을 무대감독은 즐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가을의 아쉬움을 뒤로하니 겨울이 다가왔다. 다시 '공연 보기 딱 좋은 날씨'면 좋겠다.



오색빛깔 문화나눔 사업으로 구석구석 경기도를 누비다

글 민경화 경기신문 문화부

‘경기 문화나눔31’, ‘컬처테라피콘서트’, ‘경기영아티스트 콘서트’, ‘다(多)야금양상블’,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책 제작’, ‘경기·삼성 Dream 어린이 합창단’...
올 한 해도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문화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찾아다니며
113회의 문화나눔 공연을 펼쳤다. 삶의 빈 곳을 따뜻하게 채우면서,
도민 모두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힘을 보탠 것이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이라는 명성에 맞게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는 1년 365일 풍성한 공연들을 만날 수 있다. 경기도문화전당이 기획한 수많은 공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을 떠올려보니, 의외의 순간이 뇌리를 스친다.

몇 해 전 경기도문화의전당 소속 예술단인 경기팝스앙상블이 파주 25사단을 찾아 용바위대대 500여 명 장병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공연이다. 이날은 유명 가수가 나오는 것도, 화려한 무대가 꾸며진 것도 아니었다. 어두컴컴하고 허름한 강당에서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서 관람해야 하는 열악한 조건이었고, 연주자는 팝스앙상블팀과, 보컬가수가 전부였다. 하지만 관객 반응은 유명가수의 콘서트만큼이나 열광적이었다. 공연이 끝난 뒤 인터뷰를 요청하자, 군인들은 앞 다퉈 엄지를 추켜세우며 “너무 신나는 공연이었다”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일상과 단절된 군 생활을 하는 군인들에게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찾아가는 공연은 가문의 단비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문화가 필요한 곳을 직접 다니며, 삶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의 문화나눔사업은 수익이나 관람객 등 눈에 보이는 수치로 계산될 수는 없지만 시나브로 경기도의 문화를 풍성히 채우고 있었다.

‘경기 문화나눔31’은 군부대를 비롯해 근로시설, 병원, 복지시설, 학교 등 지리적, 환경적 여건으로 문화적 수혜가 어려운 도민에게 직접 찾아가 공연을 선보이는 문화복지사업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소속 4개 예술단과 1개 공연단은 경기도 전역을 찾아다니며 양질의 공연을 펼친다. 경기도립극단은 ‘시집가는 날’을 재미있게 각색한 마당극 ‘맹진사댁 경사’와 중장년층 부부의 삶을 그린 ‘소풍’을 공연하고 있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현악 5중주와 금관 5중주로 클래식

재미있게 즐기도록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경기도립무용단은 전통무용과 사물놀이 모듬북을, 경기도립극단은 퓨전 국악과 민요 공연을 통해 우리 춤과 소리의 맛을 전하고 있다. 찾아가는 공연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단체는 경기팝스앙상블이다. 팝과 클래식, 국악, 가요 등 동서양 음악을 재구성해 파워풀한 무대로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 한해만 113회의 문화나눔 공연을 개최하며 문화사각지대가 없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바쁘게 뛰어다니던 경기도문화의전당은 특히 올해 더욱 다양한 직업군과 계층을 만나고자 새로운 사업을 기획 운영했다.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직장인들이 문화를 통해 치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컬처테라피콘서트’가 그것이다. 지난 4월부터 예술가들과 함께 일터를 방문해 공연을 펼친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분당소방서, 송탄소방서, 여주소방서, 경기도청 북부청사, 성남소방서를 방문, 단체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재능기부 또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주력하고 있는 문화복지 사업 중 하나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15년부터 차세대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양성하는 ‘경기영아티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디션을 통하여 선발된 연주자는 1년간 경기 영아티스트로 활동하게 되며, 독주회, 오케스트라 협연, 찾아가는 공연,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무대경험과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무대를 이끄는 아티스트로 거듭나게 된다. 올해는 김영지(바이올린), 김지영(피아노), 김강태(피아노)가 선정돼 독주회를 비롯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역량을 키웠다. 실제로 경기영아티스트로 선정됐던 신예들은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소식을 전하며 예술단 재능기부의 필요성을 방증했다. 2015년 선정된 이유진과 조수민은 각각 무네츠쿠





컬처테라피콘서트

국제콩쿠르와 중앙음악콩쿠르 3위에 올랐으며, 박진형과 김준호 역시 2016년 프라하 스프링 국제음악콩쿠르에서 각각 1, 2위를 수상하며 한국 음악가의 실력을 세계에 알렸다.

경기도립국악단은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야금을 지도하는 '다(多)야금양상발'을 진행하고 있다. 가야금으로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고자 기획한 '다야금 양상발'은 국악 뿐 아니라 각 나라 민요, K-pop 등 다양한 음악을 연주해 흥미를 높이며 발표회를 통해 그 결실을 선보인다.

경기도립극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책'을 제작해 예술을 통한 나눔을 실천한다. 약 25만 명에 이르는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사회적인 소통, 독서생활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소리책 사업은 도립극단 단원들이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2013년 이시원의 희곡 '녹차정원'을 시작으로, 셰익스피어 '맥베스', '리어왕', '로미오와 줄리엣', '오셀로'를 녹음해 시각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에 배포하고 있다. 그밖에 2013년부터 진행된 '경기·삼성 Dream 어린이 합창단'은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임직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후원하는 프로젝트로, 경기도 어린이들에게 문화나눔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 올해는 경기도 내 31개 지역아동센터 700여 명의 문화배려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악가를 비롯한 전문 음악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합창교육 및 예술감성교육을 추진한다. 연말에는 드림콘서트를 통해 그간의 결실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한다. '문화 소외 없는 경기도'를 실현하고자 힘쓰고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올해 다문화가정, 장애인, 새터민 등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이 용이, 이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향유에 대한 빈부격차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9월 안산 석호초등학교에서 열렸던 경기도립극단의 찾아가는 공연을 관람한 뒤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연극을 학교에서 볼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미소 짓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컬처테라피콘서트

경기문화나눔 31 | 정희섭 차장

“지난 5월, 경기도립극단과 함께 찾았던 평택 에바다 장애인 학교에서의 공연이 아직도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공연을 신청했던 선생님이 연극의 시작부터 끝까지 무대 한 쪽에서 배우들의 대사를 일일이 수화로 다 통역을 해주더군요.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화나눔 31은 소외된 지역과 문화복지 혜택 수혜가 적은 곳을 찾아가는 까닭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연을 보며 행복해하는 어린이들과 수고했다고 연신 인사를 해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담당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모든 걸 감내하고 프로정신으로 공연에 임해주시는 경기도립예술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영아티스트 | 이선영 대리

“경기영아티스트 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간 배출된 경기영아티스트들이 벌써 11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 유망주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한 해였죠. 국내외 주요 콩쿠르에서 경기영아티스트들의 수상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담당자로서 정말 보람되고 행복했습니다. 2018년 더 좋은 연주로 경기도민을 찾아갈 경기영아티스트 시리즈!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성원을 바랍니다.”

컬처테라피콘서트 | 정재영 주임

“2017년 신생 사업 컬처테라피콘서트! 새로운 형태와 방향으로 기획을 해나가며 한 해 동안 무척 행복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근로자나 소방관 등 열악한 근무환경의 종사자들을 위해 맞춤형 콘서트를 기획하고자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녔죠. 새로운 아티스트들과 소통하고, 더 나은 다음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콘서트를 나누는 기쁨과 더불어, 저 역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심볼인 ‘연둣빛 침표’들이 경기도를 누비고, 감성을 나누는 이 사업이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굿모닝하우스 콘서트 | 정철훈 차장

“초반에는 ‘무료 공연에 사람들이 많이 올까?’하며 매 공연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도민들이 찾아주어 성황을 이루는 공연 현장을 보며 이제는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구 소련시절 노동자들은 불과 몇 천 원을 주고 불쇼이



경기영아티스트



경기삼성드림합창단

발레단 작품을 감상했다고 하죠? 불쇼이까지는 아니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품격 있는 공연을 우리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기삼성드림합창단 | 신광호 과장

“경기삼성드림합창단에 참여하고 싶어 센터 등원을 열심히 하고, 예전보다 밝아지고, 학교생활도 더욱 잘하게 되었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강사 모집, 교육 모니터링, 드림콘서트 준비, 각종 민원... 지속적인 업무로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이라 한 번씩 지칠 때도 있지만 드림콘서트 무대에서 700여 명의 아이들이 대합창곡 ‘꼭 안아줄래요’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울컥해지며 보람을 느낍니다.”

G-소리맵에 담아낸 '경기' 천년의 음악을 찾아 떠나는 여행

글 조순자 중앙대학교 무형문화재 연구 및 한국음악구술론 강사

경기도립국악단은 지난 4월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소리를 찾아서' 순회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 행정구역상 '경기'라는 이름이 탄생한 지 천년이 되는 2018년을 겨냥한 프로젝트로 2017년부터 2년 간 추진 중이다. 2017년에는 지난 4월 4일 광명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9월까지 6개월 동안 경기도 13개 지역의 주민을 찾아가는 연주회를 열었다.



사실 지역순회공연이라는 타이틀은 참신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어찌 보면 식상하기까지 하다. 국내 국공립연주단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이 사업은 국민의 문화복지 수준의 향상과 문화향유권 확대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악단의 순회공연이 전 과정을 악단이 주도한 '들려주는 음악회'였다면, 경기도립국악단이 새롭게 추진한 순회공연 '경기소리를 찾아서'는 지역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출발부터 달랐다. 경기도립국악단의 '경기소리를 찾아서' 프로그램의 의미와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지역 민요 아카이브의 구축이 선행된 체계적 사업이다. 경기도립국악단은 경기도 전역의 노동요를 비롯한 토속 민요와 통속민요를 집대성하여 '경기소리지도(이하 G-소리맵)'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연주회를 기획하였다. 'G-소리맵'에 기반 한 지역민요 순례로써 여타의 '찾아가는 음악회'와 차별성이 있다.



2017 G-소리맵



'G-소리맵'은 경기도립국악단이 경기도 31개 시·도 지역에서 불리던 토속민요를 발굴하고, 경기민요로 널리 알려진 통속민요를 통합하여 제작한 경기민요 가이드다. 2017년도에 방문한 13개 지역에 대한 지역별 민요를 보면 '논매는 소리'가 8건 (광명·오산·군포·의왕·과천·양평·고양·의정부)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 5건은 모심는 소리(동두천)·바디질소리(평택)·서호납줄갱이소리(수원)·배치기소리(안산)·동계타령(연천)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민요는 2018년도에 방문 예정인 18개 지역의 민요들과 함께 'G소리 악보집'으로 발간되어 지역 국악단체에 배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둘째, 경기지역 국악연주단체 및 연주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경기국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소리꾼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민요를 보급하는 상생연주회다. 경기도립국악단은 '한국국악협회 경기도지회'를 통해 추천을 받은 해당 지역의 소리꾼과 연계하여 협업의 무대를 만들었다. 특별한 것은 지역 국악단체가 역제안한 민요들 가운데 일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지역만의 토속민요로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는 기회가 되었고, 재창작의 과정을 거쳐 더욱 풍성한 경기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리꾼들이 들려주는 민요는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와



의왕시아를채-인북치

그들이 민요를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수용하도록 돕는다. 이 공연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국악단체 및 연주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지역소리네트워크 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생애주기에 따른 차별적인 음악연주 프로그램의 첫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경기소리를 찾아서'의 관객층은 65세 이상 일반노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국가는 다양한 보편적 노인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문화복지 정책과 실행전략 또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가고 있으며, 경기도립국악단이 발 빠르게 경기지역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회를 추진한 것이다. 이 음악회는 연령별 관객의 정서에 맞는 맞춤형 음악회의 시발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지역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음악회를 시작으로, 지역의 민요를 기반으로 하여 청·장년, 청소년, 아동 등 생애주기별 관객 특성을 고려한 음악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태어나 같은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는 같은 세대(generation)는 그들만의 집합기억

(collective memory)을 갖고 있기에 그들만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각 세대의 공통 경험과 기억을 끌어내는 것은 바로 음악이 될 수 있다. 민요는 노인세대만의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각 세대에 맞는 민요를 발굴하여 그들의 코드에 맞추어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민요를 통한 소통이 가능하다. 민요(民謠)는 예로부터 민중(民衆)이 생활 속에서 느낀 감정과 경험의 이야기를 엮어 부른 노래다. 이러한 민요정신에 따라 향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한 민요로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을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넷째, 무형문화재의 지역적 뿌리내림과 대중적 향유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진 연주회다.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해당 지역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공동체성을 고취시킬 수 있다. 토속민요의 원형을 들려주어 원래 음악의 뿌리를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토속민요를 현대적 미의식에 맞게 편곡하여 연주함으로써 대중적 이해도와 음악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음악회로서 의미가 더욱 크다. 유네스코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전승성과 더불어

창조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무형문화재가 과거의 유물로 지정되고 보존되는 차원을 넘어서 각 지역의 구성원들이 전통적으로 전승된 문화를 자신들의 것으로 인식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소개하는 것 못지않게 원래 그들의 것이었던, 언제부터인지 우리를 떠나버린 그것, 우리의 옛 소리를 찾아 되돌려주는 것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전문음악단체의 몫이다.

‘경기소리를 찾아서’ 순회공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올해 방문한 1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지역연주회는 2018년에 추진하게 된다. 현재진행형인 사업에 대한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핵심적인 한 가지만 꼽는다면 전통민요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제시해 준 연주회로서 성과를 보였다는 점이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듯, 전통음악은 미래의 한국음악을 비추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속의 한국, 독자적인 우리 문화를 지키고 가꾸어가기 위한 지역기반 사업의 우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장을 역임한故 노동은 교수는 경기도의 지리적 환경을 보면 동쪽으로 올라갈수록 백두대간이 길게 뻗어 있으며, 바로 이 점이 경기도가 우리나라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비옥한 평야지대와 좋은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곡창지대를 형성하였고, 그곳에서 뿌리내린 민중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요 ‘논매기 소리’를 비롯한 수많은 민요를 부르면서 살아왔을 것이다. 그들의 삶의 소리가 오늘날 ‘G-소리맵’에 기록되고, 순회공연 ‘경기소리를 찾아서’를 통해 부활하고 있다.

경기도립국악단에 바란다. 오늘날의 경기도는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도시와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이 공존하며, 특별히 우리와 문화적 뿌리를 달리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거주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러한 다양성은 곧 다양한 음악적 요구로 이어진다. 노인을 위한 ‘경기소리를 찾아서’를 시발점으로 하여 향후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요구에 맞는 ‘세대별 맞춤공연’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경기도민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무대를 선보이며 진취적인 연주단의 모습을 보여준 지금까지의 행보를 응원하며, 더욱 발전된 형태의 무대가 펼쳐지기를 바란다.





<예술과 만남>이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이번호 <예술과 만남>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건의하고 싶은 점 등
자유로운 의견을 독자 엽서 또는 이메일(magazine@ggac.or.kr)을 통해 전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4분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경기도 클래식의 자존심,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창단 20주년을 맞이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에 걸맞게 20년 차 단원과 신입 단원을 함께 인터뷰한 코너가 무척 좋았습니다. 경기필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낸 선배와 1년의 시간을 보낸 후배가 나누는 대화가 정겨웠습니다. 경기필을 응원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 경기필 20주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멋진 음악과 무대를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싶네요. 또 다른 경기도립예술단의 선후배 단원들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 기사였습니다. **오수민**(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성시연 단장이 취임했을 무렵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처음 알게 되어 제 기억 속에는 '성시연의 경기필'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지난 20년에 대한 회고를 읽으면서 경기필의 탄생과 단장님의 흐름, 그에 따른 경기필의 변화까지 역사를 훑을 수 있어 기억에 남습니다. 경기도민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성장해 가는 경기필과 함께한다는 게 자랑스럽고 든든하네요. 경기필의 뜨거운 2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하고, 앞으로 펼쳐질 20년도 가까이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김하영**(하남시 감이동)



1930년대 조선가곡을 소개한 글이 흥미로웠습니다. 일제강점기라고만 알고 있었던 그 시절에 그런 화려한 문화가 있었는지 미처 몰랐는데, 바로 그 시절이 오늘날 대중문화의 시작점이라니 재미있었습니다. 조선가곡 5인이 가진 개인사와 히트곡 소개도 잘 읽었습니다.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가 어떤 공연인지 궁금해서 직접 공연을 보러 갔는데, 30년대 음악을 잘 편곡해 듣기 좋게 들려주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인들을 많이 소개해주세요! **정수진**(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젊은 음악인 지원 오디션에 합격한 3인의 이야기에 눈길이 갔습니다. 경기영아티스트 프로그램, 마스터 클래스, 마스터 워너비 등은 재능을 갖춘 젊은 아티스트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해 주고, 경기도민에게는 숨어있는 클래식 유망주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3인의 음악과 무대, 미래 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엿보면서 언젠가 세계 무대에서 이들이 멋지게 활약하길 기대합니다. **이나연**(김포시 풍무동)

회원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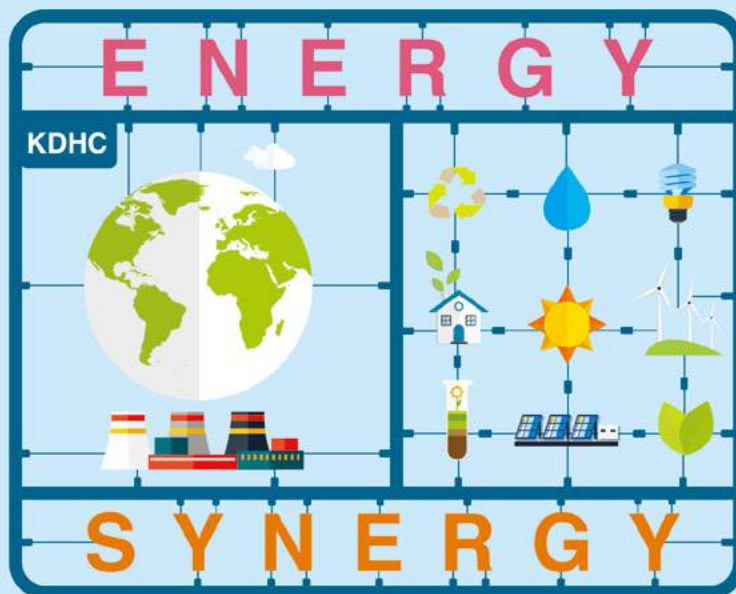
 10% TICKET 공연·전시 티켓 구매 시 할인 일부대관 공연·전시 제외	 TICKET ₩ 예매 수수료 면제 전화 및 전당 홈페이지 티켓 구매 시	 ₩ 취소 수수료 면제 전당 기획·예술단 공연 *온라인회원 제외	 경기도문화의전당 Korea Arts Center 경기도립예술단 정기·기획공연 초대 *골드 연 4매 / 일반 연 2매	 5% 강좌 수강료 할인 교육프로그램 '예술가 꿈' 수강료 5% 할인 *온라인회원 제외
 식음료 제휴 서비스 카페 셀란(CELLAN) 음료쿠폰 증정 *골드 연 4매 / 일반 연 2매	 〈예술과 만남〉우편 발송 *온라인회원 제외	 공연 프로그램 북 증정 기획공연·예술단공연 1회 1권 *온라인회원 제외	 주차요금 면제 공연·전시 관람 및 행사 참석 시 무료주차 *온라인회원 제외	 문자(SMS, LMS),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가입 안내

- 연회비 : 골드회원 5만원 / 일반회원 3만원 / 온라인회원 1만원
- 방문 가입 : 경기도문화의전당 미소도움관 내 인포샵 또는 고객센터서비스팀 방문
웹 회원 가입 : 전당 홈페이지 웹 회원 가입/로그인 후 고객센터 > 아트플러스 유료회원 안내 > 회원가입
- 가입 후 10일 이내 회원카드 등기 발송(온라인회원 제외)
- 2018년 휴관 관련 아트플러스 회원제 운영 방침
 - 2017. 1. 2 ~ 2017. 12. 31 기간 중 가입회원 유효기간 1년 연장
 - 신규 또는 재가입회원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쇼(일반 2매, 골드 4매)제공

문의

- 전화 031-230-3242
- 팩스 031-230-3275
- 이메일 artplus@ggac.or.kr



에너지가 될까요? 시너지가 될까요?

누군가 에너지 그 자체만을 말할 때
우리는 지구를 보듬는 에너지를 생각합니다

누군가 에너지의 효율성만을 강조할 때
우리는 에너지가 만드는 따뜻한 세상에 주목합니다

누군가 미래의 에너지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에너지가 만들 더 큰 시너지를 계획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지 시너지를 만들지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NEWS

2017 DECEMBER + 2018 JANUARY | VOL. 129

상처입은 용 윤이상,
대학로에서 다시 한 번 날아올라



01

경기도립극단의 <윤이상:상처입은 용> 앙코르 공연이 대학로를 뜨겁게 달궜다. 양정웅 감독, 이대웅 연출, 이오진 작가의 의기투합으로 주목받았던 연극 <윤이상: 상처입은 용>이 지난 7월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대학로에서 앙코르로 관객들과 만난 것.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상처받은 삶을 묘사한 이 작품은 10월 21~29일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다시 한 번 날아올랐고,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좋을 고수준, 고품격의 신표현주의 연극으로 탄생시켰다”는 평을 받으며 그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경기도 통합채용,
경기도문화의전당 경쟁률 114:1



02

도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험 원서 접수 결과 평균 61: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중 경기도문화의전당은 4명 모집에 458명이 지원해 114:1의 경쟁률을 보였다. 10월 16일 원서를 마감한 이번 통합채용은 29일 필기시험, 11월 중 면접 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로 이어졌다. 취업준비생들의 사전준비를 배려하고, 투명한 채용을 선도하는 경기도 통합채용은 우수인재 채용 가능성을 높이며 호평받아왔다. 경기도문화의전당 관계자는 “해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더욱 공정한 채용으로 신입사원들을 맞이하겠다”고 전했다.

대극장에 울려 퍼진 감동의 합창,
드림콘서트



03

700여 명의 아이들이 부르는 꿈과 희망의 노래가 11월 11일 대극장을 가득 채웠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23명의 희망나눔강사(지휘자, 반주자)를 선발하여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25개 시군 지역 아동센터에 파견, 아이들과 노래했고 그 결실을 무대에 올렸다. 이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2017 <드림 콘서트>에는 총 31개 단체가 참가해 ‘우리는 꿈이 있어요’, ‘내 동생 참새래요’ 등을 불렀고, 참가 어린이 전원이 한 무대에 올라 ‘꼭 안이줄래요!’를 합창하며 감동을 선사했다.

12+01

GYEONGGI ARTS CENTER

조수미 콘서트 <라 프리마돈나> 전석 매진 기록



04

우리의 영원한 프리마돈나, 조수미가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찾았다. <라 프리마돈나> 콘서트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조수미의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 공연장 밖에서는 미처 예매하지 못한 팬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조수미의 얼굴을 보기 위해 공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피아니스트 안드레이 비니첸코의 반주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조수미의 작은 숨결까지도 느껴지는 진정한 독창회였다. 특히 오페라 <호프만의 노래>에 삽입된 '인형의 노래'는 위트있는 안무까지 곁들여져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경기도립국악단 - 한국민속촌의 흥겨운 콜라보레이션



05

전통예술을 계승하는 경기도의 두 대표 기관, 경기도립국악단과 한국민속촌이 뭉쳤다. 11월 5일 오후 1시, 민속촌 농악 공연장에서 두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가을음악회 <동화풍류>가 열렸다. 이는 민속촌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한국 전통 음악을 알리기 위한 협업 프로젝트로 민요, 동요, 라틴, 팝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경기도립국악단의 창작국악 무대가 특히 빛났다는 후문이다. 풍류와 함께 하나가 되자는 의미의 '동화풍류'라는 제목처럼 관객과 무대, 전통 그리고 현대가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가 연출됐다.

북유럽, 한국의 아름다운 몸짓에 반하다!



06

경기도립무용단이 본격 북유럽에 진출했다. 한국의 아름다움과 한국 무용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공연 <The Beauty Of Korea>가 11월 9일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 '뮤지칼리스크(Musikaliska)'와 13일 핀란드 헬싱키의 '사보이 시어터(Savoy Teatteri)' 무대에 올랐다. 태평무, 진도북춤, 강강술래, 농악무 등의 레퍼토리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무용이 언어의 장벽 없는 예술 언어임을 증명하듯 현지인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동서양 교감의 장을 훌륭하게 마무리했다. 한국무용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도립무용단의 향후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12 DECEMBER

① 대극장 ② 소극장 ③ 빛나는갤러리 ④ 소담한갤러리 ⑤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⑥ 꿈꾸는컨벤션센터 ⑦ 번큰무대 ⑧ 신나는 야외극장 ⑨ 외부공연 ⑩ 야외광장 ⑪ 초청공연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② [평택국제교류협회] 경기팝스앙상블 문화나눔31 ② [가평 예총] 경기도립국악단 문화나눔31	① 어반자카파 콘서트 2017 어반자카파 전국투어 - 수원
3	4	5	6	7	8	9
① 어반자카파 콘서트 2017 어반자카파 전국투어 - 수원	② [수도기계화보 병사단 포병여단 60포병대대] 경기팝스앙상블 문화나눔31	② [동학중학교]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문화나눔31	② [평택서부노인복지관] 경기도립국단 문화나눔31	① 이루마 콘서트 Frame ② 브란치콘서트 with 김종진 겨울 그리고 말로&박주원 ③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라보엠	③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라보엠	① 이승환 콘서트 공연의 끝 : High End ③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라보엠
10	11	12	13	14	15	16
① 이승환 콘서트 공연의 끝 : High End ③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라보엠			① 최소빈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② [화도중학교] 경기팝스앙상블 문화나눔31	② [수도기계화보 병사단 포병여단 808포병대대] 경기팝스앙상블 문화나눔31		① 남진 콘서트 2017 남진 송년콘서트
17	18	19	20	21	22	23
① 리사이틀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①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7 경기필 애플루트시리즈 IV 성시연의 베토벤 9번(수원)	②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7 경기필 애플루트시리즈 IV 성시연의 베토벤 9번(서울) ① 콘서트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콘서트		② [한국미래복지재단 등근세상] 경기도립국단 문화나눔31 ② [중앙고등학교] 경기팝스앙상블 문화나눔31	① 뮤지컬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③ 퓨전국악 판 깨는 소리
24	25	26	27	28	29	30
① 뮤지컬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① 뮤지컬 레베카	① 뮤지컬 레베카
31						
① 뮤지컬 레베카						

아트플러스회원 초대 가능 공연 2017 경기필 애플루트시리즈 IV <성시연의 베토벤 9번(수원)>, 2017 경기필 애플루트시리즈 IV <성시연의 베토벤 9번(서울)>
아트플러스회원 할인 가능 공연 2017 어반자카파 전국투어 콘서트 - 수원, 브란치콘서트 with 김종진 <겨울 그리고 말로&박주원>, 2017 이루마 라이브 콘서트 <Frame>, 이승환 콘서트 <공연의 끝 : High End>, 최소빈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화양연화 시즌 2 <겨울의 비밀>, 2017 남진 송년콘서트,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2017 경기필 애플루트시리즈 IV <성시연의 베토벤 9번(수원)>, 2017 경기필 애플루트시리즈 IV <성시연의 베토벤 9번(서울)>,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콘서트, 뮤지컬 <레베카>



2018년 경기도문화의전당 휴관 안내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관객들과 경기도민들에게 좀 더 안전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설비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사기간 동안 휴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재개관은 언제인가요?**

A. 공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019년 1월 재개관 예정입니다. (내부 사정 및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 일정 및 재개관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휴관 기간 동안 공연은
모두 중단되나요?**

A. 아닙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기획공연은 타극장에서 2018년 내내 진행됩니다. 경기도, 혹은 서울 시내의 주요 공연장에서 공연이 이어지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상주하는 경기도립예술단은
어디로 가나요?**

A. 공사는 극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경기도문화의전당 직원 및 예술단은 계속 상주 및 근무합니다. 또한 예술단의 찾아가는 문화 나눔 복지사업 역시 계속됩니다.

**Q. 아트플러스 회원입니다.
2018년 아트플러스 회원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2018년 휴관에 따라 2017년 1월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가입하신 회원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드립니다. 또한 신규 또는 재가입 회원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쇼(일반2매,골드4매)가 제공됩니다. 휴관 기간 중에도 경기도 주요공연장에서 문화의전당 공연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아트플러스회원 초대 및 할인혜택도 지속적으로 부여됩니다.

**Q. 갤러리와 야외공연장,
광장도 함께 휴관하나요?**

A. 공사가 극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나 소음 및 분진 발생으로 인해 갤러리와 야외공연장, 광장도 부득이하게 휴관합니다.

**Q. <예술과 만남>은
계속 볼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예술과 만남>은 2018년에도 발행되며, 타극장에서 진행될 기획공연 및 경기도립예술단 공연 정보, 문화나눔 사업과 함께 관련 인물과 이슈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전달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욱 사랑받는 극장으로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ww.ggac.or.kr



twitter.com/iloveggac



www.facebook.com/iloveggac



blog.naver.com/ggarts



9 772234 594006

ISSN 2234-5949